

추억 (追憶) (회생기)

저로부터 이런 말을 하라 살다.
 내가 이 글을 쓰자고 상앞에 앉아 명상 한다 앞이 캄캄하리 아득하리
 그것도 그럴 밖에 있는 것이 저끼고, 득불고 희색 된 나의 과거에서 그 무엇이
 찾아 내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나 아니라 하물며 85년이란 긴 해가 지난
 오늘에 와서. 그런 것도 몰라라 죽고 허튼 지난 나의 생애를 따듬어 보려
 한다 그런데 무슨 새삼스레 이런 질문이 제기 될라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글을 쓰려는가 : 왜 삼도 모르고 글을 쓰는 일겠는가 : 이 질문이 나를 괴롭
 혀라. 쓰기가 말갓하리 유권거리 나가 이런 결론에 이르러라 내가 이리
 잠지나 신문을 위해 이 글을 쓰는가 내게는 그런 ^{재료가} ~~재료가~~ 없다 그저 나의 라자를
 내 자신을 위해 생각 나는 대로 적어 보려 하는 것 뿐이다 누가 읽어 볼지라
 그런 건 보여 줄 수도 있라 나의 라자를 세심히 쓰지 않라 그저 내 흥 쓴라
 ! 고 양 사 사 사.

본인은 1910년 7월 6일 (음력) 함북중성군 제해면 ^본보산동 민중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본래가 1야르 일체가 조산을 함 1명 해라.

보산동은 산간 벽지라 땅이 좁고 배가 아프고 돌이 많아서 1여 농사는
 못 하고 주르르, 옥수수, 보리기라 작물을 들심는다 농번들이름이 희드록
 문종일 고된 일은 하겠만 늘상 불리 그 개를 내기 기 힘들라 그래서
 호근목리로 부르기도 식량은 보험라 그 때의 제나라, 제강, 제사 앞이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오손도손 수십년 살아 왔다

나의 부모도 불로 백이나 일곱 식구가 삼간 호목에서 1여촌에 살았다
 큰 딸이 개나구 때, 불나구 한 때 돼기러전, 들각 람 이것 이
 흥을 어 두리 짐 재산이라 우리 짐이 산 밑에 있었다 어느 때 여름이
 큰 흉수가 나서 종성군 일대를 휩쓸었다 이때 산채가 비리는 아람이
 우리 짐이 볼라구 죽어졌다 이런 세간 가 닳이 왔었으나 말이지 아람이
 있었 다면 온 식구가 불산 할 수도 있었 다 짐을 람 잔 수리 해야
 했 다 그래서 조부가 짐수타르라지라 산에서 나무를 채를 1여여 왔다
 콩고름 지르 이것 이 술사름은이 는에 먹어서 조부가 일분형 두스 이가서
 3개월 강제 노동은 했 라 생전 그 누구를 꾸짖이 양친 할아버지 람기
 돌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직 1만 라 장 직으로 돈들이 우리 나라 이
 라서 제 백 개로 좌지하리 한다. 저 끝이 사남아서 이리로 가
 라겠다'고 라신다

조부의 이 말씀이 우리집이 이사하게 된 동기의 하나다.

조부는 한문이 아주 거역할 분이다 늘 손이 책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면서든 끝속이 끝읽으시든 책을 내가다 이때 들었나도 조부에게서
천자를 배웠다 조부는 나보고 신하 양심있는 사람이 되라 항상 가르
치시었다. 조부는 우표를 득살하게 삼기든 문이 없다 그림이든 물구아고 한때
의미가 같나시었다. 이때부터는 손사름들이 조부에게 들을 걸로 있었다 이
문치를 보르지 않는 조부가 늘 물안라게 지내었다

지금은 볼수 없는 문헌상이지만 전에는 부문의 제사를 지내자면 축문을
(지신을 칭하는 글) 써야 하라 봄이 되면 립춘방이라는 것을 써서 임구에
붙이곤 했다. 그때 우리마을에는 축문이나 립춘서를 쓰는 문은 우리 조부
한분 뿐이였다 조부가 이 책을 저 책을 관나시면서 아이들끼리는 가르
치시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조부를 같이 경복했다.

나의 아버지는 아이 때 사랑이 가라라 하면 한사코 말은 들지 않고 나를
학교에 보내 갈라라 권리를 썼다 한다. 그렇시게 후에 학교가 없고 회령
이나 종성에서 학교가 있기는 했으나 돈이 없어서 뛰어들어 학교에 못 갈
보냈다. 하는 수 없이 짐에서 자슴했다 한다. 학교에 가 볼 적에 없는
문이고 누리의 손은 실지 알고 글은 쓰고 보고 지어 냈을 가르치기까지 했다

한편은 할아버지가 나를 앞에 세우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보이는
저 바위가 무슨 바위인 니가 아느냐? 오늘 우리 저 바위 곁에 가볼라
자비만 이야기 있다" 하시면서 내 팔을 이끌고 바위를 찾아 갔다
이 바위에 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봉산동에서 잘 보이는, 그 돌이 거이 30 미터이 갈라지는 바위가 솟아
있다 봉산동 사람들이 이 바위를 "선돌막이"라 부르다 종성군 사람
최고 "선돌막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바위는 한 때는 실금이 깎아
지른 듯 할 네로 만뚝한 바위 세개가 쌓여 있다 그런데 ~~꼭대기~~
바위 ^{바위} 위의 사람의 큰 뿔죽 말자죽 흔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위
에서 심여 리 가량 되는 곳에 이와 똑같은 바위가 여덟 솟아 있다 이
바위 위에 사람의 뿔은 말자죽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말견
하라 라는 말이 옛날 여느 한 장수가 이 바위에서 저 바위를 띄여 넘은
말자죽이라 말라 또 이 바위 밑 큰 돌판이 장기관이 드러나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장수들이 놀란 장기관이라 하고 한다.

그래서 이 "선돌막이"를 보고 실라 그럴씩 마라 봉산동이 그림다

사람이 제 해를 들 곳은 어디 잊은 수 있겠는가!

한편은 아버지가 "우리 지금까지 근근이 살고 있다 이제 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외롭고 우리 땅을 잊었고 안다 여건은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겠나" 하시고 짐은 떠났다 격두
달 만에 돌아 보았다 그동안에 중국, 황제 러시아를 건너 보았다 한달
이후, ~~얼마 후~~ 짐과 얼마 안 되는 가산 짐들은 타고 랑장 떠날 차이를
한다. 이 소문을 듣고 나의 아버지가 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 왔고
"형님이 떠나가시던 우리는 여기 치누크를 빌고 산관 밭임까지 하면서
황황을 다 우리도 같이 울었다 이것은 그때 사회가 잊어 버린 이극이
이 주.

1916년 봄에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거느리고 짐들 고향을 떠나 황제
러시아로 이사 보냈다 그러나 여기도 산설고늘설은 하향이 다 쓸쓸하고
정정하가 누구 하나 눈도 거들러 보지 않는다 그래도 아버지가 숨을
찾아서 추풍 사사를 돌아 보았다. 그러나 희수고 뭍이 정착할 곳이
없었다 그 당시 추풍 사사이 원호(황제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말함)인들끼리 살고 있었다 그들은 다 ~~자본주의~~ ^{자본주의} 한 사람들이었다 자기는
랑만이고 이주민들은 산동들이라 판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 곳을 찾아 나리저리 찾아 다니다가 마침내 아주 궁핍한
중심 여항이라든 마을로 찾아왔다. 이 마을에는 원호인은 없고 세기 구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거기 30호나 되는 슬픈한 고려촌이라 하하말
하했지만 이 마을이 참히 독립된 ^{거처} ~~본거~~ 본거로 됐다

이 마을에 남씨 한 호가 살고 있었다 그래도 흥성이라 해서 우리끼리
사랑 땅을 길러 주었다 하긴 이 집에서 오래 살지 못하리 쫓겨 보았다. 이 짐은
소, 말, 돼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이만하면 편함게 사든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편이 두끼를 들고 나가서 산 밑에서 있는
참나무 두棵로 땀나뉘로 잘나왔다. 알고 보니 이 짐주인 할아버지가 짐이
무슨 사고가 생기게 되면 많은 짐고 한은 갖추어 가지고 나와서 이 참나무에
처형을 들이곤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무를 잘나온 마르 2날 만에
마주간에서 말들이 서로 풀고 해라 하면서 야간 넘석 했다 극인 할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말는 나무를 잘나와서 말들이 서로 싸들
라라면서 우리를 랑장 ~~이~~ 짐에서 나가라 관라 하는 수 없이 이
짐에서 쫓겨났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격으로 마침 이혼 개을 결어
 예= 2배 창고로 쓰라가 내어린 언짐 하나가 있었다 어머니가 이음권을
 대수 수리하리 식솔들은 여기로 옮겨와 이 짐이 나중에 독립군들의 함근
 무로 됐다 이기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해 보겠다

1918년 가을에 ^{황진이} 모창환이 식솔들을 데리고 중심향으로 왔다
 이분이 이혼이 와서 굉장 자기 짐에 예수교회를 열었다 이 소문을
 듣고 마을사람들이 호모일에 예수 믿으려 이 짐을 찾았다 차츰 교회가
 크게 됐다. 어머니도 돈 식솔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었다 그러나 조부는
 한사코 반대하고 교회를 안 다니었다

죽로 모창환이 기도하셨는데 그중 거리는 이렇다

"라를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서 모으시어 감사 감사 하사나...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라를 ~~내~~ 매어주고 돈 갖 열서와
 보옥과 천대를 받는 이 인간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찾게 해 주시옵
 소서 - - - - - 아멘"

김이매가 끝나기 되던 어머니와 모창환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국내외 정세와 특히는 조선 독립에 관 ~~한~~ 해 주아를 환기시키었다.
 모창환 짐이 외형은 교회나 내용은 신전실이였다. ^{모래} 교회가 ^{모래} 무지 못
 됐다. 두썩라이스크 세이 고려사범학교가 열리자 모창환이 거기
 가서 고려문헌을 가르치었다. 그러다가 1920년에 체포됐다
 하긴 모창환 선생 ^{모래} 모래나 사범학교에서 ^{모래} 모래 문헌을 장고원러
 라 ^{모래} 모래, 채동원, 정종석 이라 접지 됐다 모창환의 말아들
 모 1명세가 사범학교를 졸업하리 ^{모래} 모래 학기회를 가지리 한창
 말전라던 22살 때 체포됐다 ^{모래} 모래 모 1명세가 악형고문을
 못 이기어 옥실에서 죽었다 한다 모 1명세의 어머니는 고민하리 ^{모래} 모래
 자살했다 모 2이 ^{모래} 모래 모창환 가정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악형들은 ^{모래} 모래
 시대 때 이와 같이 ^{모래} 모래 ^{모래} 모래 가정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하도 주섬고 ^{모래} 모래 일이라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이전 황제 러시아 때 악치르 (세관에서 일하는 직을 말함)가
 고려사람들의 출락을 자주 찾아왔다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복 해서 그저 악치라곤 불릴라 악치가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
들이 제각기 뭘은 감출라 흑히 처녀들이 리우셔워될라 그런드그런
것이 ”악치르“는 보기 무섭게 생겼라 대개 키가 크고 몸이 썩으라고 검은
제 복이 큰드름 차은 긴 채찍을 들었라 머리에 은뿔은헤이 혀를 바란
절 대양이 각본 보자은 건만 지기 싫라 어느때나 술에 열광히 취해서
말무이서 랑장 22년 어 짚짚 갈았라 마음에 모게 되면 조선사람들을 깔
보고 만말로 다짜 고짜로 술을 내라는 것이라 술이 없라곤 하면 채찍으로
사정 없이 갈기고 권도를 세어 들고 피하는 곡식을 온조리 항을 치질라곤
한라 그러게 되면 누가 내로 낚알을 가져온다, 랑을 가져온다 술은 가져
온다 야 단이다 뇌물도 잘 받는다 이걸 황제 러시아 제노하에서 고려
사람들이 살아온 사소한 실례의 하나라

우리는 그때 우리 출신에서 멀지 않은 까라 끼에이르 러시아 혼 아이들과
좌조 싸움도 했라. 러시아 아이들은 우리 보고 흑미르 (좁쌀이란 뜻) 라곤
하면 우리는 흑미르 흑미르 (검정, 미안) 이라곤 대꾸한라 외로 두들려
대는 일도 있었라 아이 때는 흑미르 소락 해서 이런 일이 있을수 있라
심안들이 아이들 랑름에 간섭한 일이 없라 러시아 사람들이 생품이
우리는 인내성 있는 민족이라 해이 편안할 것이요 고려출과 러시아
출이 멀지 않게 살려서도 서로 른러이 그런 싸움한 일이 없었라 이교적
화목하게 지냈라

~~이것이 될년지 혼라노 이런 것은 해어살라.
조부가 남시질을 즐겨라신다. 주로 흰뽕시로 산천어를 잡는다 흰뽕은
조부가 나보고, 흰뽕이 산천어가 노랑새가리(러시아 사람은 뽕뽕)
흰뽕이 잘 낚는다고 흑미르 흰뽕은 조구했어 년 좋겠라 하신다” 나는 조부의
이 말씀은 듣고 노랑 흰뽕을 알기로 했라 하르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러시아 혼으로 갔라 술숙이 뽕을 감추고 러시아 아이들 기질될라 조
있노라니 아이 하나가 나올라. 눈 깜짝 사이이 그 아이를 못잡고 가위가라곤
러리 흰뽕을 잘 낚는다 아이가 울기 시작한라 대마 랑이 짐이 딱어왔라
조부에게 그 러리 흰뽕은 드리었다. 그런데 그 흰뽕을 가져고 흰뽕시를 썼는다
그후 조부가 이 흰뽕시를 가져고 산천어를 씌끼 많이 잡았라 내가 하르
이상 해서 노노랑 새가리 흰뽕이 산천어가 잘 낚는 까하리 조부와 물어
조부가 ”나도 그 미끼는 혼들라 야나 노랑 흰뽕이서 고기가 좋아하든
냄새가 나든 조양이라 리실라 내가 그후 남시질과 이 미끼는 물어~~

보았으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나로써는 신기하다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빛깔 재물인 것 같다

극명전 고려군이 사랑하여 있는 혼이 드물었다 중심 항에는 사랑표이
있었다 그래서 나의 무친이 이 혼으로 오자 끝장 끝이 학교를 설립할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주민총회를 열고 이 혼이 학교를 세울 때는
총회이 제다였다 이 혼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라긴 회의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저문(아버지를 뵈옵)이 학교가 무엇인지 알거나
하면서 저러는가. 학교집이 없지, 교원이 없지, 교과서가 없지 책상이
있지 맥가지에 한 가지도 없는 헛헛한 곳에서 어떻게 학교를 세운다는
말인가" 이런 조롱했다

그러나 아리저는 그누구도 말도 듣지 않고 시작한 일을 그냥 계속했다
이 혼리에 있는 시간점 한 채를 사가라 수리가 착수했다 목수들이
나무를 자를 때 널미알지를 걸는다, 잔판을 놓는다, 책상은 편각,
대질준 등이 먹은 아른다, 도역한다 우라하 있는 사람들은 원부드선어
올라 학교길은 깎는다 아이들은 운동장에 분리를 걸는다 운동터가
소매를 걸고 나섰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만 맞으면 무슨
일은 못 하겠는가! 한 달이 못 돼서 혼이 학교가 일떠섰다 학교
전편에 "우리 학교"라고 끄는 현판이 걸리었다 사람들이 이걸을
보고 너다 기이어서 놀랐다

9월 초에 학교수가 열렸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오
는다. 첫 삼학시간이 애국가로 시작된다 1.2.3 학년이면 일일늘리
하는 일학년이 관니었다. 선생들은 모두 내리(조선서)에서 온 분들이라
그 때 있는 과목은 ~~3~~ ² ~~2~~ ² ~~2~~ ² ~~2~~ ² 산술, 국어, 고려지리, 한문, 습자
도화, 일어, 체조 시간들이라 조선서가 저 온 교과서를 가진 공무였다.

중심 여항에 학교가 열렸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야래거, 왕거우
남북심 여항, 솔말관 기라 마을 등에서 아이들이 중심 여항 학교로
공무하려 왔다. 중동철로 사면 때 영웅이 된 김 옥영은 ~~우리 학교에서~~
~~공무했다~~ 회동학 (조선이민촌 흥재회 국장) 오기한 이 우리 학교에서
공무했다.

우리는 2 광시이년(년이 돌아오는 3.1절 기념도 굉장히 ^{백이} 정축했다
학생들이 해죽기를 만들고, 대한독립만세! 라는 구호판을 만들고
연관도 만들었다

기념날 학교 운동장이 많은사람들이라 모인 학생들 해죽기를
늘이 듣고 운동장이서서 대한 독립 만세! 하고 운이 되리라 그렇게
되면 운동도 다라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른다고 시간이 되면 리영호
선생이 연단에 올라 눈물 섞인 연설을 할다

동쪽 여학생! 지금이 시각에도 외침들이 우리 급수 강산을 깃발고
없습나라 ^{학생들}이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습나라 --- ^{학생들이} ^{3.1 운동 때} 이런
우리 땅에서 목아냄사라 이 기업을 위해 끝까지 투쟁사라 ^{이것이} ^{이런}
우리 겨레들이 흘린 피는 아직도 식지 않았습나라 다 같이 일어나 적과
싸우습사라 --- 우리의 힘은 무적장함나라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이 호응한다

기념식이 끝나게 되면 학생들이 해죽기를 배흔들면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한다. 학생들 시끄러한 때 만중군이 전홍사적
연습은 하던 회차 밖 거리의 마에 앞에 와서 끝날라 학생들이 2차를
내었고 마에 앞에 와서 죽도를 드린다

우리가 아이러 회차 밖 거리를 지나 가게 되면 안뚝이 2마에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곤 하던 일이 지금도 씁롭다

회차 밖 거리는 불과 5-6호에지 넓지 않은 작은 마을이라 그러나
1909년 하록의 정거장에서 2등 안뚝은 출산한 안중근이 와 있었다
회차 밖 거리가 이쪽 작기는 하지만 역사에 오른 수 있는 마을이라
생각 된다. 지금 치라 시에 가서는 홍성 남, 기르 기리아 수도 프르 세
에서 사는 정 선 길에 이 촌에서 살았다 외 사람 들 은 나 와 동 년 대 라.

내가 한국 기자와 회차 밖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듣 어 쳐 소 의
라고 하면서 큰 관심은 돌지 않나 그러나 이 때 까 지 아 무 소 식 도 없 다
모 든 일 이 이 때 가 있 는 일 이 라 때 를 몰 리 면 그 만 이 다.

1922 4월 29 일에 일본군 한 대가, 독립군들이 5.1 절 은 준 이
하 느 라 고 한 창 아 에 보 내 는 흔 들 하 서 손 알 관 은 습 적 했 다 40 시 간 이 나
포 격 을 가 했 다 40 호 나 되 는 손 알 관 이 몰 홍 재 부 지 가 했 다 2 절 과
중 요 한 물 건 은 과 인 재 기 가 라 하 어 했 다 이 때 독 립 군 부 대 들 이
지 방 행 진 이 나 가 있 었 고 허 승 환 무 대 만 남 아 있 었 다 적 군 이 너 무 나
수 세 래 서 뺏 겨 싸 우 지 않 고 후 퇴 하 였 다.

이후 독립군 참 모 를 중 심 여 참 으로 몸 전 과 중 심 여 참 은 독 립 군
들 이 이 교 적 안 심 리 고 살 수 있 는 곳 이 라 좌 우 의 는 들 은 산 들 이 있 고 2

그 계곡을 따라 서쪽으로 한참가게 되던 북심향, 남심여향이라든
 작든 마을들이 있고 좁러가게 되면 중곡으로 이어진 골산벽이 일러
 중심여향은 손말판사건 전에도 독립준들이 지무였다. 랑사미 우리
 짐이 리공짐, 리영호, 황영오, 최옥동, 최찬석, ~~김영기~~, 조성열
 리용, 리승환, 오기섭 가라 유능한 인사들이 와있었다 우리 짐한
 구획에 충, 한환 그 땅에 명가들로 ~~짜~~ 짜있었다. 아른때로 말
 해서 우리 짐이 명기교나 다른 없었다.

이리던 저문 어느날 아버지가 갈구지른 준이라든 거기라 해서 새끼 두
 딸이, 광구리 몇개를 샅는다 그리고 나를 갈구지어 앓으라곤 한다 나는
 무슨 병들이지 모르고 올라 왔다 어머니 아버지 보시고 "어디로 갈
 차이를 하오" 한다. 아버지가 아주 해열하게 "어디 좀 갖 라올리
 있소"라고 대량한라 짐을 떠났다 갈구지가 갈번다 하이래라 락
 기미잇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못했다 여덟 시간 후이
 우리 갈구지가 소왕령(당시에 고려사참판 우수원이서를 아들이 불렀다)
 에 들어선다 나는 어사가 처음이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흥내고 칼환 위는
 들이 싸낸다 아버지가 어찌라고 위는 소군으로 오현은가 좀 짐이 보라
 이때 썩썩 썩썩 거리이고 터사람이 정영하는 자그만한 려관이
 있었다 아버지가 어련관으로 들어가신다. 려관 죽임이 그전부터
 아버지를 한 ~~수~~ 수리 마는 모양이라 아주 반감기 났어한다 죽연이
 내 손을 잡고 친절히 락한다. 아버지가 어련관에서 사흘두고 아현
 일주이 떠날 준비를 한다 ~~갈구지~~ 남보라는 듯이 갈구리 뒤이 뒤지
 라나, 물동치, 샷자리를 싣고 북관이 나를 앓힌다 갈구지가 떠났다
 시외로 나온 때까지 전드려 눈이 없었다 무사히 짐이 도착했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이 유리를 기라리고 앓힌다 친구들이 큰 숙고든
 려냈소 하련서 아버지라 부수 한다. 짐을 여덟 채서 꾸려준다 알고 보니
 갈구리 빌이 충, 한환을 싣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짐으로 날타르련라
 위는 들의 눈을 속이기 위하 아버지라 나를 리라 단번것은 나는 앓힌다
 이후 어머니가 나를 리라곤 라나지 말라곤 아버지에게 ^{내가 나를 이라} 빌리 싣이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는척 하는척 한다 그후에도 ~~한~~ 아버지 ~~가~~ ^가 ~~가~~
 수차 소왕령은 관내 왔다 이것은 때란히 위험한 일이라 형이 명에
 생명을 아친 사란이 아니고저는 이런 대량 부살관 일은 도저히 할수
 없다

1922년 6월 12일과 13일과 14일 아침이 소낙비가 내리다가 개이고 하늘이
 푸름 환장 없는 맑은 날씨가 2어는 때나 약간까지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은
 끝나고 떠들썩하고 운동장에서 노는 데 난데없는 콩볶듯 울소리가 도란
 라기 간다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 놀라서 개울 속으로 쫓겨가 버린 것 같
 었다 한참 있노라니 울소리가 그칠라 그 때 아이들 울 속에서 나오지 않았
 운동장이 잠잠하라는 선생의 주의를 듣고서야 학생들이 울 속에서 나와
 운동장에 보였다 알고 보니, 혈성관 근처가 지방병 군에서 돌아와 중심여창
 에서 쉬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은 외군 한 소목대가 마차에 항거우(크로우)가
 호호를 울며 앞뒤로 중심창이 달려들었다 외군이 우리 군인들을 쏘았다 이것을 알자
 마을에 불길이었다 그러자 밖출진이 시작됐다 외군 저격수 한 명이 중심여창에
 잘 나려다 보이는 자리를 찾아야 하고 우리 군인들은 쏘았다 이것을 알자
 혈성관 저격수 한 사람이 포대(홍이 적을 막기 위해 돌로 둘러싸인 호수)에
 에 올라 외군 저격수의 이파를 아로 쏘았다 그러자 눈을 망아외도 미처
 못 당기고 죽사했다 이것을 본 외군들은 몸을 뒤집어 벽과 자기군인사체로
 못 걸고 무상 광한 총역도 내리려던 1명도 없었다 이날 문득연, 문정우,
 김택선 세 사람이 사망하고 외군 세 명이 죽었다

아군은, 그 날로 남심여창으로 이동했다 중심여창 주민들도 포탄을 만
 남겨 두는 데 의심했다

그 이튿날 외군 대목대가 중심창을 포위하여 장포 몇 발만 내서
 들어왔다 그러자 포인들이 장포들을 쏘아냈다 풀이 불지르고 총, 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이던 외군 장포들이 포인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가하지 않고 자기를 사체만 걸어가지고 공손히 가버렸다 아마 외군들이
 이 땅에 와서 불은 풀이 큰 모양이라 사람들이 깔렸나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중심창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았다, 이어지는
 이후 최성룡이라는 사람의 소작농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2. 생활의 전이

1922년 2월 시월이 일군이 원동에서 철영했다 그러자 원동 전 지역이
 소이화 됐다 이어지가 이 해 봄에 재피가우로 이사했다

재피가우는 1880년 경에 개천원점으로 알려 있다 개척 초기 리공숙,
 리공현, 김합영사 기하 사람들이 살았다 리공현이 이촌이 심은 1어느날
 자라서 사람들이 "리공현 양현"이라 불렀다 리공현은 나이 9

장인이다. 원력 있고 의지가 강함은 ^{없다} 나쁜 장인을 못 보았다
~~식욕~~의 오래 앓다가 살가방이 ^{없다} 큰 병으로 자살 했다고
한다

재피겨우는 물남, 물북, 강나뭇초 (강나뭇고목 한때가 서있다고 해서
강나뭇초이라 불렀다) 으로 나누어 저었다 우리도 물남에서 살았다
이후에 살 때 우리가 겪은 몇가지를 말하겠다.

후풍사사에서 첫 쇼메르가 재피겨우기 설립 됐다 아이자가 첫 쇼메르
의 특별장으로 선출됐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전문적으로 사회사업에
나설까 혼란서가 마르 잠히기 시작됐다 마스콘 제도가 점차적으로 폐기
되고 후전과 ^함잠으로 살아 오던 전 단원들이 차차 없어졌다 민동들이
쇼메르를 지지 찬동했다 그러나 그런것은 아니라 일부 무효들은 쇼메르
를 은근히 비하했다 선제도가 끝나서 일부 무효들이 외국으로 도망쳤다

그 당시 파종시기나 추수시기에 시쇼메르나 사당에서 농촌으로 지도원을
파견 하곤 했다 한 번은 파종시기에 사당에서 우리 농촌으로 남 농촌을 지도
원으로 보냈다 그분이 우리집에 와 있는년까 ^{정도} 수임은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 때만 해서 까를 사랑 20여명이 뭉뭉이 들고 우리집 마당에
들어 왔다. 그중 한사람이 "시에서 온 지도원을 끝내 줄이라 우리 그놈은 ^똥래워
죽이겠다" 외친다. 아버지가 곁에서 이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사랑들 ^앞에
다가서서 "이것이 여짜원 ^말이오" 하니 그 한사람이 말하기를 "시에서
온 놈은 해위죽이겠다"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들 소원이 참
그렇다면 나쁜 해위죽이오, 그 사랑은 사랑에서 온 분이오, 우리를 도우
려 온 동무요, 무죄한 사랑을 죽이고 대담할 사랑이 있다면 ^말에 나서
시오" 하니 대답이 없다 한참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 들먹 흐려지고
말았다. 이후 아버지가 이것이 누구의 작간 인줄 잘 알면서도 그저 내
려다 두었다 ^후이런일이 라시는 없었다 온 까를 사랑들이 쇼메르를 보고
간단 ^말 들었다 안 일된 일이 없었다

~~재피겨우기 운동에서 모든 사건을 회상하려 한다.~~

아이들이 저녁은 먹고 학교출 (학교가 있자 해서 학교출이라 불렀다)
으로 놀러 가는 것이 상습으로 됐다 거기 가서 유희도 하고 여간 때는
영화도 구경한다. 어느날 저녁에 어느때나 까한가지로 아이들이 학교
출으로 왔다 그날 저녁에 까한 학교에서 활동사진 (그 시절이 영화를 활동사진
이라고 했다)을 돌렸다 지금에 이르러는 취치하기 짝이 없는 흑색 무성

깜깜한 밤이 나를 못 볼 잠은 줄 알고 내 뒤를 따루지 않았 다 슬속이 숨어
있다가 흥이 뜨자 짐이 왔 다고 라신다

놈들이 불잡아 간 사람등을 차례로 불초 했 다 마지막 으로 조무르
문초 했 다 조무가 이놈들이 내 아들은 불잡자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내~~
^{내가} ~~소~~ ^{메르} ~~이~~ ^원 ~~장~~ ^의 ~~라~~ ^고 ~~하~~ ^면 ~~가~~ ^른 ~~사~~ ^람 ~~들~~ ^은 ~~놓~~ ^아 ~~죽~~ ^이 ~~라~~ ^는 ~~것~~ ^을
알고 " 내가 소메르이원장의 무친이라 이 사람등속이 내아들이
없다" 라신다. 문초하러놈이 조무 보고 '앞에 쫓 사람이 랑신
아들이 아닐가' 하리 ~~문~~ ^조 ~~무~~ ^가 ~~그~~ ^럼 ~~가~~ ^리 ~~대~~ ^랑 ~~라~~ ^신 ~~다~~ ^그 ~~러 ~~나 ^까
문초하러놈이 " 저런 고약한 사람 보았나 아버지를 두고 뛰라니"
하면서 훌쩍 울었다~~~~

일이 이렇 게 되자 조무를 불로로 낚여 두고 다른사람들은 각출한 다
이사건 이후 몇을 만에 ~~만~~ ^만 ~~중~~ ^중 ~~에~~ ^에 ~~백~~ ^백 ~~죽~~ ^죽 ~~은~~ ^은 ~~산~~ ^산 ~~불~~ ^불 ~~이~~ ^서 ~~총~~ ^총 ~~소~~ ^소 ~~리~~ ^리 ~~한~~ ^한 ~~양~~ ^양 ~~날~~ ^날
이것이 무슨 신호인 줄 알고 아침에 산불에 올라가 보니 아나나. 다른가
죽지 롱이가 들어있는 10명이 돈우이 총에 있었다. 죽지 의 내용은
이렇 가. 총 몇 자루, 한알 몇 개, 돈 얼마를 아무날 1명이 울연 런
자리에 갖다 놓으라 만약 이 조무를 거두 한다면 랑신 무친의 생명이
위험 하라는 것을 알라" ~~그~~ ~~는~~ ~~것~~ ~~이~~ ~~라~~

이 험악 적 죽지 의 내용이 알려 지자 동리 흐르 한 문들이 아버지를
찾아 와서 내알리 손은 쓰라 고 조르라 사실 2 랑시에 이런 조무를 들이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저런 권고 를 듣는 척 하는 척
하고 꺾 참고 있었다 한 달 만에 조무가 짐이 돌아 오았다.

우리는 2 시기에 여름이런 짐이 서북 자고 자리를 가자 4 와 누수 알
고 랑에서 작군 했다 흥고, 매고 프고 즉심 런 여린 시절을 지근
터듬어 보니 어찌 말라.

우리가 어 혼으로 이사해 온 이듬 해 여름이 남섬 여창에서 머주이
있었다 이 머주를 아는 사람은 적라 2 때 이사 살은 어느 한 출판
물도 살지 않았 다 며칠이 물이르 있었다

70 년이나 지난 오늘에 와서 그런 역사를 잊힐 필모가 없었
는가 하리 세아할 사람도 있을 수 안 다 그러나 역사의 사실은 목과
~~할 수 없다~~ ^한 ~~가~~ ^는 ~~것~~ ^은 ~~아~~ ^주 ~~무~~ ^해 ~~를~~ ^라 ~~그~~ ^런 ~~의~~ ^미 ~~에~~ ^서 ~~남~~ ^섬 ~~한~~
머주를 좀 자세히 말라 할라

1922년에 고려말씨산들이 무가르 말이고 평화적 코동이

착수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일부 무개들은 무관한 채로 중국으로
가버렸다. 이 때 한 소부재가 무관을 맡아지 않고 남심여항이
큰 지지를 주고 먹고 살기 위해 하겠으니 까 혼으로 돌아다니면서 현이
먹은 것은 사실이라 그러나 사람을 죽이거나 자해하는 일은 없었다

이 보도를 받은 북은 큰대 본부가 기영 몇 명은 남심여항으로 보냈다
그러나 남심여항이 허송환 큰대에서 북부하던 청년 30 명이 있었다
기영들이 여기가서 이 사람들을 한 줄로 앉혀 놓고 딱히 칼로 찌르는
다 뜻이 짱그리 북을 잘라 버렸다. 아나 기영들이 이곳으로 볼 때 북을
라 잘라 버리라는 북부의 명령을 알고 와서 이런 끔찍스러운 일을
저지린 것 같다. 그러나 저거나 이것은 만행이라 칼로 찌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재피거우 공청단들이 남심여항이 가서 칼이 북을 잘린 청년
들을 매장하려 왔다가 누른 지에서 여씨주에 대한 자세한 이념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이 2장 레석이 참가한 사람들은 다 사망했다. 나쁜 2개
소년 관련이 없다. 그래서 2장 레석이 죽어 갔다.

나는, 2개 허송환은 남심여항으로 파견했다. 이런 이쪽은 회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풍설도 있었다. 즉 남심여항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먼저 출전은 그러나 기영들이 격문해서 그들의
북을 1배인 것이라고 받은 편지였다. 이것은 폭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천가하기 위해 주면 날 말 ~~이와 남의 목숨~~ 흘린 것이다.

우리는 북에서 일곱 식구가 3개 호가점이며 1배쯤에 살았다. 가난이
점스 되고는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노예는 더 된 장으로 얻으면서
19 루블을 받았다. 이것은 가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강나우촌 (고독 강나우한 대가서 일라) 해서 출사반들이
강나우촌 아래로 풀었다)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강나우촌에서
여농사로 했다. 신이메는 일은 하면서 점스 이 여농사를 해 보사리
했다. 그러나 이촌이 마침 8개 인접 한 대가 없었다. 아버지가
이 점을 들어 보고. 이밖은 사람 보고 "이 점이 왜 기여 있소" 이런
물으니 그 사람의 대답이 "아마 문르시도 보야 임리다. 이 점에서
살던 하루 사람이 점은 내 버리고 갔습니다. 이 점에서 많이면
꼭 소리를 리는 사어들이 절로 개리 할 만 나" 하니 대답한라
아버지가 동리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 점으로 이사하는데 강선들이
만대 낼소" 하니까 동리 사람들이 오갈데 강선이 할 리서

그러나 공연한 생각은 하지 마시오 이 점이 허가시켜와 드록 사오²한라
 이너지는 동리사람들의 말을 뜻은척해 짐수리기척수한라 짐을
 세운리 오해리 알아서 열로수리할기는 없었라 이 짐으로이사²했다 절림
 사람들이 횡설수설라다가 한사람이 아버지 보고 "이 짐이서 살기
 무심지 않소 한라 그래서 아버지가 "무심기는 무엇이 무심라 말은
 누른 미신을 믿지 않소. 짐이 많으면 재산이 적도 믿이오²라했다.

이 짐이 와서 거이 두르나 살아오 사람의 곡소리도 뜻 들고 아이들들이
 저절로 열리거나 갈리든 인이 없었다 아버지가 동사를 해서 살림살이
 좀 더이었다. 나도 이혼이서 7년째를 준양하리 1927년이 유복타스크사
 고려사범학교에 입학했다 나의 학업이 대체는 앞으로 발전할

1928년 초에 사임상 필로이이하 썬사꿈가(고려사람들이 이혼은
 형제²라했다)로 이사했다 썬사꿈가는 추풍사사이 출은 손
 꼽히는 거이 300호나 되는 큰 출이다 현대적 출락이다 만중등학교,
 유제국상점, 제물소, 유석점, 교회당 나중에 출청년들이 교회당을
 재건하리 구락무를 받든었다

이 출이 썬사꿈가, 크로유유가 재적거우가 출함해서 대연양
 조함을 설립했다 이 조함에서 ^{다녀리} 여타가리 책임사임을 했다.

1929년은 큰 흉년이라 가뭄이 심원런 곡식이 라 말라머라² 씨드²
 거두었다. 2 당시에 "해평양조함" 당이서로 차 열두가 책임자
 일했다 가뭄 때문에 조함원들이 굶는것은 보고 차 열두가 조함원
 들을 먹여 살리길라고 ^{곡식} 감출것이 말각외라 짐나서 중국으로 도망칠차
 그때 책임자들이 아주 겸손하고 양심적으로 일했다 아버지가
 조함에서 책임적 사임을 했은이 드물리²라² 짐에 들 먹은것이
 없었다. 하루이저우 드 따른 먹고 살았라

썬사꿈가이 로련 회고소메는 개이원 리 예브도게야가 살고
 있었다 22리 이녀사가 고려사람들중에서 유일한 씨이원이었다
 곡식이나 조함에서 물조함으로 일하면서 조함원들의 칭찬을 알았다
 이녀사가 이혼 소메트 위원장으로 활약 할 때였다 가을이
 시 소메트에서 지도원한사람을 보냈다 이 지도원이 농잠사찰은
 나갔다가 2랑어준라고 곡식단을 ~~보~~ ^보 갔고 2번질이 리 예브도게야
 에게 보고 ^되 되자 예브도게야 2지도원은 2이혼남로 쫓아²러왔다
 2리 이사신을 시랑이화 불고²라² 2지도원을 당에서 ^{출간대키라고} 쫓아²러갔다

제이든다 사랑이서 할 수 없이 그를 추방했다 2 광시에 시이서 국수
기념 행사가 있는면 리예브도끼이를 기념행사에 초청했다 2 2리
때이던타 의신어 이 광기 들었다

이상에서 말하니아와 같이 나는 1924년 가을에 유스리코시 고려
사업 학교이 입학했다 2 광환의 짐이 와있으면서 공부했다
고려사립학교가 3년제라 3학년에서 공부하다가 득등상생과
공통으로 짐이서 돈을 흥쳐가지고 모스크바 공부를 떠났다 2 광시에
모스크바로 공부하려 가는것이 투쟁이였다 막심까(하등권화)이
말아 득등이러 돼서 모스크바이 도착했다 2 광시에 모스크바이
고려주학부가 있었다 이고려주학부에서 학생소매가 있었더니
이 학생소매는 각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입학소개를 해주었다
우리는 늦게 오길래 모스크바이는 자리가 없고 우크라이나 수도 하리코브
를 갈아고 한라 2 2리서 나는 하리코브로 왔다 여기에도 하분라트스크
지리에 고려주학부가 있다 여기서 나를 니콜라예브시르라 면한라
이 때까지 모고나니 돈이 한푼도 없다 굶는단이라 하느수없이
니콜라예브시공청위원회로 찾아왔다 공청회서를 만났다. 그가
나하고 이등증이 없다고 하니 묻는다 (2 2리 공청원이 하지않으면
가자고 하면 이등증이 없어야 했다) 이등증이 없자라 하리 공청원이
어떻게 관하는지라 부른책만한다 너가지금 돈이 없어서 굶는
자라 하니 공청회서가 관참 생각 하라가 소개서를 써 주면서 나를
"비정년 노동학생"으로 가라라 한라 2 2리서 학원으로 왔다 학원원장이
나를 친척의 제한라 학원아이들은 나를 가쁘게 맞이한다 이 학원은
노동자를 자식이 여기 와서 여러가지 기술을 배운라 자그만한 공장이라
철공실, 목공실, 자물실, 기차가 있다 나는 목공실에 배치되어 인타라가
9월에 노동학생이 입학했다 1930년에 학원을 졸업했다 이
노동학생은 니콜라예브 조선(조선) 재학 산하에 있다 2 2리서
노동학생은 졸업한 학생들은 극시원으로 재학이 말한다
나는 재학에 입학했다 재학 3학년은 졸업하니 문이
1년이나서 장기 투쟁은 막은 짐이 왔다. 건강이 회복 됐다 2 2리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부하려 못 갔다 여기서 재학들이
같이 말했다

지급과 생각해 보면 다시 공부하려 한 건물이 각행이다 왜냐하면 나의 동창생들은 김 씨 씨이. 김 씨 씨가 졸업한 이후 공부하러 갔다. 이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러 갔다. 고려 학생들이 모조리 체포된다고 내가 제외될 수 없다

1933년 가을이다. 2강시이 가을이면 조항원들이 의무적으로 산림속에 가서 체벌해야 했다. 하루는 아버지 보고, "너는 아직 젊어서 공부는 차차 하고 식솔들을 먹여 살려라. 이번이 목재소로 가게 되면 언제 돌아올 수 없다" 라시고 목재소로 가셨다. 봄이 되면 목재소에 갔던 조항원들이 다 돌아오는데 아버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 크게 걱정하다가 양아버지를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왜 지금까지 안 돌아오세요" 라고 물으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어머니가 목재소에 직접 가서 알아본다고 그러는 차이를 하는데 뜻밖이 우썬리시 카나드 블르스크 거리 321번에서 사는 폴로브라는 러시아 사람이 어머니에게 돈 150 루블을 보냈다고 돈을 받고 어머니와 내가 ~~아마~~ 아마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일하시는 것이 라고 짐작했다. 어머니 좀 안심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만주 등 학교에서 프드론을 참고 읽었다

1934년 가을 어느 날 밤에 아버지 꿈을 보았다. 아버지는 참으로 뜻밖이 우리 기쁨은 한이 없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무슨 한해 동안에 아버지의 면모가 몹시 1년 전과 달라져서 희미해져서 백발이 되고 나이가 많은 주름이 깊어지고 안색이 흐리었다. 나는 그때 아버지를 마라 볼면서 - 무슨 일을 하시기에 한해 동안에 저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마음이 안타까웠다. 이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동지들이 앞 전 반 밖으로 안 나가시고 집에 있다가 ~~사실~~ ^{면모} ~~면모~~ ^{면모} 아버지가 보고, "우썬리스크 시에서 전혀 않은 라리츠 훈이치 회측동, 라호르기가 만다. 그들은 나의 전우들이라 거기까지 그들은 받고 살아라" 라신다. 2월 4, 어머니 나의 처 메리가 우썬리스크 시까지 아버지를 가져왔다. 아버지 우리 보고 사정을 꼭 하고 하신다. "이것이 나의 딱 길이다. 라리" 어머니께 암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직은 사정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아주 위중한 사정이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고리요런 이 사정을 내 놓고 볼라. 참말 아버지 러시아 안 돌아오셨다

1935년 초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리리츠로 이사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 라호르기가 학교 교장으로 왔었다, 있고

최 추송이 강이서로 일었다

라 리츠 추락 역사를 간단히 말하겠다.

라 리츠는 백호를 넘는 큰 러시아 호이다 이 호에 호가 힘이 없고 양철 깎듯
들어왔다 대개 무호농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호호를 겨우으로
보아 형성한다"는 구호가 하나하나 이 호에서 살던 무호농들을 강그리
형성하고 고려사 람들끼 이 호는 ^{남편}이 되었다. 고려사 람들이 이 호에 오자
극성(極星) 조광을 조직했다 그때 "극성" 조합이 ^{면간에서} 평양을
거점했다 이사 해 문 첫 해에 홀극 면이 있는 체내지를 개간하고
1여 농사를 시작했다 농사가 잘 됐다 1여 농사 기계 들은 수확은 보라 곡물
배수 (국가에 바쳐도 현물) 에서는 어느 때나 천 가 리를 찾어 했다
구역 출판 지이 "극성 끝은 르가" 재조 심했다 고려사 람들처럼 무르려한
면족은 드물었다

라 리츠 러시아 사람들이 이것을 은근히 꺼워했다 때로는 우들이
특약 ^집을 ^집 늘는 일도 일었다. 이런 미합찬 일도 일었다 아마 1936년
가을에 빛은 열이래 기억 된다 "극성 끝은 르" 농장이 분출이서 면지
거점어저 있었다 그해이후로 공청원들이 많이 면 농장은 지리 일었다
그때가 공청이서로 일었다 하루는 이천과 바천가지로 김 용근, 박형석
등 공청원을 파수를 처하고 농장으로 내 보냈다 밤에 어떤 농들이
등 공청원이 있는 파수 북이 문을 열었다 파수 북이 전소되자 등 공청원이
파수 북 속에서 타 죽었다 그때 1업적 기관들이 이 ~~면~~ 사신을
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아무 결과도 못 거두고 말았다.

강제 이주

1937년 9월이 다 된둥이치 살던 고려사 람들을 중앙아세아로
이주 시킨다는 말이 떠돈다 나는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 했다. 하루는 구역에서 사복한 두 사람이 와서 강
이서와 조합이던 장을 찾는다 이 사람들이 왔다 가져 언젠 끝으로
총회가 조직 됐다 총회이서 강이서기 길만 없이, "된둥이서 단련
고려사 람들은 중앙아세아로 이주 시킨다는 상무의 지시가 있소,
우리 끝은 르는 9월 십일에 떠나게 됐소. 열은 먹은 땅속과 여부자라
간단 소지품을 가지시오" 한다 이것은 과연 처한 1억 력이다, 여기이
오래 백여 수천 사람들이 짐, 가족, 처, 가장 짐들, 아작 질지 않은
채소 기우에 살림에 필요한 재물은 가져 갔었다 이것을 팔 시간도

있거니와 사는 사람도 없었단다 여혼에서 사는 러시아 사람들은 거
고려 사람들이 각 러시아의 면 많은 것이 제끼 차례 자리라 생각하
총아 그렇다 하긴 죽기에서 형같은 짐, 가죽 알곡은 살라 어떤 사람은
적분하곤 심술이 나서 짐안에 있는 가죽, 꿀, 열 등을 독꺼는 듣고 모조리 깨우친다
돼지, 개, 오리 같은 것은 동양과 같아가라 고려한다

9월 십일이 구역에서 사복한 몇 사람과 내주원 몇 사람이 와서 이말다
러날 차이를 하하하 울러낸라 짐은 사람들이 모조리 아이는 어른이
알는 사람들은 화물 자동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나갔라 저녁 아홉시가
되서 한 때 목축을 수송할 때 화물차를 역에 들여 댈라 이말다 차이
모르라고 내주원들이 평평한라 아이들 울음소리, 아이들은 활는 이레기
소리, 알는 사람들의 산음소리 이것은 관세관을 ^한 관세관이라 그때 이 관세관을
화명 했단다 이 여자를 보고 을 사람도 있는 것이라 저녁 11시나 돼서
기차역이 문환라 한 차량이 8부구가 한라 차량 안에서 가죽 짐대가
풀기고 차량 북판이 난로가 있을 뿐 다른 시설은 없라 그때 우리 ^{사람}가 피식
하는 가지 보 애가 민었다. 나이를 이물 한아 놓고 들었라

우리 ^가 련차 차이 지이 400 명이 문환라 그 중에 알는 사람들이 열었다
그러나 여생화양도 없고 여사도 없고 한원도 없었단다 아르헨티나 한 화물
련차이 목축을 수송할 때에는 수리가 꼭 라라 다녔다 한라 그 때
정원 강국이 이주 ^차 들은 소나 돼지만 볼라게 희유한 짐이라

그런데 원일이 ^차 지 말고 서일라가 라음은 아침 열한시나 돼서
천천히 련차 기적 소리가 들릴라 이 기적 소리는 마치 강제로 싣러가는
사람들이 물물을 출하는 것 같라 차량 문 앞에서 "원들이여 잘 있거라
습어 말라 또 목반이 있느니라" 고 하면서 수건을 내흔드는 사람도 있었라
르시아 사람들도 심심해서 고려는지, 미워는지 모르겠으나 손을
내흔드는 사람도 있고 말을 내흔드는 영간 르러기도 있었라

우리 련차가 연기를 출하면서 힘차게 갈뿐라 그런데 원일이 강하게 쳐추는
끌호르 웨인광 김 북원이 문이 안느라 차가 련차 직전에 그들을
헤쳐 냐라 그들이 영 5 원이라 말했라 그때 나는 어떤
생각에 잠겼라 나의 어머니가 여기가 저였단다 련차원들의 운명을
연치 못할 것이 ^한 한라 어머니가 저문들과 같이 사영 했단다. "극심
끌호르가 고아로 될 십이라 그래도 무서워서 시비를 캐는 사람이 없었라

~~우리 련차가 동서로 이동이 가고 5시 ^{정리} 련차 련차 갈바라가 서~~

우리 련차가 갈나라가 어느 때나 시냇가에 싸운다 그 것은 시가 어려워
지고 명줄은 알지 않이라 한다

한번은 이런 일로 보았다 우리 련차가 세미리아의 (원환을 갈)
가가 어느 한 소도시의 절에 갔다 세운다 우리 련차를 보고 이사의
사람들이 화하고 쫓아 나온다. 우리 련차가 많은 도시들은 통과해도
우리를 환영하는 일이 없었는지 이사의 주민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구나 하고 확기이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려 나온
것이 아니라 동굴안에 새집들이 나라까지 되련 그 집들은 구경하려
오려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 사람들은 이리가 작고 피부가 검고 크고
원숭이 코 처럼 생기고 이따기 털이 많은 흉한 괴물로 알고 구경하려
나왔다 목이 커서 인리 우리 절으로 안나오므로 천안에서 서서
저리 죽어가고 썩은 지리면서 웃고 손가락질한다 우리 청년들이 아편을
팔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당신들이 우리를 구경하려 왔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고, 아마 후고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고,
우리 서로 편지를 익히시다 하고 손을 내리니 그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서 고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러는 것을 알았소" 한다 권중이 손을 내리니 이 관정은 살피려
내무원들이 권중을 쫓아 버린다 어떤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우리는 세미리아 사람들의 문화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잘못을 없다 상무에 알은 사람들이 말로는 민족장벽이
라 해결원 듯이 말하지만 사실은 말공부 뿐이다 우리 련차가
가다가 시냇가에 어느 때나 싸운다 그 것은 시가 어려워지고 전염병류행은
예상함이라 한다

10월 말에 우리 련차가 라스펜트 시류연에와 왔었다. 차 탕에서
밖을 세우었다 날이 맑아 차 탕으로 맑은 바다를 내무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 열두시나 돼서 내무원들이 출입구를 열고 차 탕에서 자리를 내리
라고 명령한다 ~~한 내무원~~의 손이 종이 장을 든 한 내무원이 "구성
조합"원들은 한 장소에 모이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거기 300명(아이들
함께)이 이나 되는 조합원들이 짐함했다. 한참인가가 우리를 ~~보~~
뒤돌고 서서 내무원들이 뒤를 따라 뜰로 나왔다 짐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스무명씩 차에 타라고 내무원이 명령한다 짐차후 우리를
뒤를 짐차들이 떠난다 여자로 실어가는가 해서 목이 죽어 나

집사들이 한참 칼바라가 우리를 갈말속이갓라 내려놓는다 어느 때
우르메크들이 살다가 내내린 것이 푸더저가는 흙집 몇채 뿐이라 다른
것들은 없다 보기에와 여러 사람들이 옥살편과 사망을 살피 보나 마는 하나
없다 미개척지라

사람들이 두둑히 서있다. 이 갈말속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만
한인가!" 하고 저마다 의심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
도 없다 크러사람의 생활력은 어느편쪽이 미할마음이 강하냐 여기로
오자 곧장 조함총회를 열고 임시위원장을 선출했다 강에서는 강
미서를 선출했다 일이 시작됐다 아이들이 딸안 어머니들과 노인들을 현재
있는 집들이 듣기 했다. 다른 사람들은 천막에서 살기 했다. 한편 갈로
우르메크를 세우기 시작했다 한 주일 지나자 갈말속이 수습개 우르메크가
나타났다. 쾰르르 전원이 총동원하여 흙집은 짓기 시작했다고 석갈이
지나자 거리 좌우에 많은 흙집들이 세워졌다. 아제는 완전한 바운이
학고, 학아소 건설이 시작됐다. 거이집 5마라 우물은 판다. 우르메크들은
우물을 안 먹고 흐르는 물만 먹기 때문에 여기이 우물이 하나도 없었던

제일 큰 문제는 세해 농사 준비 문제라 11년에는 갈말뿐이고 때가
갈도 없었다 그래서 갈말을 일구고 12년 심어야 했다 이듬해 봄에
12년 심었다 치너지라 12가 잘 됐다 가을에 우르메크스 땅에서 전혀 없던
12수확고를 얻었다 석양 때 준비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 국가에서
삼년 동안 국가연꽃씨를 연세 했다 조함원들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됐다. 거이집 5마라 자정 거를 가지고 있었다.

세해가 지나자 주책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고 학고, 학아소, 주책무가
연됐다. "우성 쾰르르"의 소들이 라스켄트 주에서 깨자 됐다.

1938년 삼월이라 살아보겠라고 밤낮 일하러 우수한 조함원
30명을 맘중이 붙잡아 갔다 이것은 대중적 집거라 그때는 대중적
집거라는 말을 못했나 말했나간 물장해 가는 판이었다.

나도 취질난 체로 됐다 많이 자는 데 푸른모자 쓴 (그때 내무인민부
위원들이 함께 물리슴) 세사람이 차를 타고 와서 내 1안이 띄어 든다.
다짜고짜로 나보고 의복을 입고라 한다 어느 경찰이 라고 안복중하있
는가 의복을 입었다 말도없이 손질으로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없어 나왔라 한 사람이 내게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타라 한다 물
쇠들이 여럿 떠나 되는 라스켄트 포감복으로 나를 실어 왔나

머리를 각고 묵묵히 키다 그리고 의복에서 관후를 다룬다 번라 다룬다 감양이
 넣는다. 감양이 들어서서 거기 60이 된 죄수 한 사람이 나보고, "젊은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이 들어 왔소"라 물어본다. 그래서 내가 "나는 아직
 세 죄를 짓지 않았"라 대답했다 나 자신이 50명이 있던 감양이 죄수
 200명이 있다. 세층짜리를 빼고 죄수들은 같이 새끼처럼 돌아 돌았다
 한 죄수가 40개까지를 세서 나에게 주면서 "이것이 당신 죄다"라 한다.
 옥살이 공기가 무겁다 한 구석이 뽕뽕이 울며 있다. 거기에서 악취가 옥살이에
 풍긴다 처음이라 전례 내기 힘든데도 그러나 몇은 지나가니 습관이
 된다. 내가 있던 옥살이 100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은 내 하나 밖에 없고
 다른은 사람들이라 죄수라든 죄수이든 사람들이 다 강연들이고 큰 열리던
 사람들이라 "전짜 감침들이 거지이서 환개를 차르 다는 데 옥살이
 감침이라 고^한 원흉라 일이라"라 죄수들이 불판을 말한다

나의 감옥 생활이 시작된다 맴중이 나오라 나를 무른다. 환간수가
 나를 데리고 한 호실로 왔다 그 호실에 심이라 (이름이 기억 안된다) 든
 사람이 책상 옆에 앉혀 있다. 이 사람이 주역 배우무기서 열리던 일라는 것은
 나는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 않다. 알으라는 말이 없다.
 주선 문서철은 맴중에서 권어네 상키이 놓는다. 거기 앉아 하하하
 나 보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아주 친절하게 "감옥 안이서는 한말 많이
 모르오" 하니까. 심이라는 쪽짜가 열리던 일이라서 "네가 여기가 어떤지
 아느냐?" 한다. 그래서 나도 맴중으로 "모르기는 왜 몰라 감옥이라"라
 그 쪽짜가 너무 절나치 편^한 된다. 그러다가 나 보고 "그리 말고 네 불로
 말에 대답해라" 한다. ^이 ~~한~~ 소원대로 해라 나는 너와 말할 생각이 없다
 라는 말을 라 붙였다. 심이 "어디 푸르 보자"라 문서철은 맴중이
 넣고 여러를 둘러본다 간수가 들어왔다 "이 죄안은 감양으로 데려
 가라" 한다.

그 이튿날 나의 심사원 중의 비르스나 체르가 맴이 나를 무른다. (앞에
 죄수들을 무른다) 심사원이 나 보고 "강선이 어찌 왜 심이 풀는 말이 안
 대람 했습니까"라 한다 (나는 이것을 비록 짐작한다) 내가 "그런코양
 어느 사람과 말하곤 솔지 알았^한다"라고 나에게 비밀말도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 비밀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하니 심사원이 "무슨
 비밀입니까"라 물어본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볼호르라는 사람이
 나의 여러에게 대람 돈 150 루블을 보냈니까 저 이상 볼호르 말이

없습니다'라니까 심사원이 "알만 할까 모름이면 어이른말아
보겠습니다 그 동안 감이 많이 가있으시오" 한다.

감안 생활은 좀 더 말하겠다. 이생에서 말하니까 와 같이 감안
공기가 모르라서 자티부터가 자인 차례로 감안 공기를 뿜아낸다. 감안
내에서 쓰는 언어가 있다. 점심 (로시아 말 외제스)을 말라드라
하인 죄인들은 실고 만나는 화를 점라 그래서 까마귀라고 부르라 내가
있던 목실이 정신이명 활자 즉 사람이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말라게
알아 있라 가도 자기 식연이 물을 관라 그러도 쓰지 않을 뿐라. 절이
사람이 없으면 물에 화 죽을 수도 있다 가를 한 사람은 알아서 그
웃기만 하라 가 한 곳만 미라 불면치 말없이 알아알라. 목실에 자장기도
잘 논다. 죄인들 중에 배양을 죽들러서 장기여를 흘출이 만드는 사람이 있다.
장기 환은 슬수절이 글인라 그러라 가도 망점결이 있기 되던 몸량라
내에 아끼라 점결이 지나면 또 장기여를 만든다 나는 장기를 좋아하
라 때 들이 그라 심신^{정신}한제 시간은 보냈다

내가 있던 목실에 ^{정신}어인인은 없고 정히 변들이 있다 그들이 서로 다투거나 때리는
것은 나로 못 보라라 서로 돕고 조연하리 화복하게 산다. 점에서 사색이 들어
와도 혼자 먹는 법이 없이 적도 건이라든 서로 나누어 먹는다 죄수들이 절방과
서로 연락 작을라 벽에 고목을 벌너내고 신을 한다. 관석후행도 한다
우리 목실에서 한 사람이 조이와 못을 관라라 몇인종과 권점사가 들어와 그리
말은 라든과 내서 그리 모구어 응한일도 있다

나의 심사원 데르^부나^부천^부프가 두루일이면 해평 하점라 한 것이 두루일이
제나로 하누 말이 없다 그 동안 나는 활날 몹시 상심^{정신}라 여러 마머져가
있을 하사라가 무슨 도우^{정신}라 ~~한 것이나 아닌가~~ ^{한 것이나 아닌가} ~~그대서~~ 5.1절을 감옥에서
뜻너 했라. 큰 평절에 한때 짙^{정신}이 짙^{정신}는가 해서 은근히 기다리알라 그
말대로 평절 말라드^{정신}가 러 뜻해질라 2월은 광연하라 죄인들끼 무슨 병^{정신}이
있겠는가 마로 5월 1일 밤이 꿈하누를 이루었는데 그 꿈이 하극 이상
하라 라스켄트 감옥 같이 갈라진다. 1메라 (부디히)가 나를 찾아왔라
이제는 그만 일없으니 점으로 가자라 내손을 잡아 관본라 깨고 보니 꿈이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꿈이 하로 이상해서 혼자 생각했라
5월 8일 밤세시에 "점을 가지고 나오라고 나를 부르라 죄인들끼 무슨
점이 있겠는가 2월^{정신}은 가려나오라라 한다. 이 호출이 나게 되던 죄수
들이 띠를 쓰^{정신}한다. 내사람은 다른 목실로 이동한다느니, 강제수용소로
가져 갈다느니

지어는 흥살할라는 죄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석방할라는 말을 안한다
 내가 감옥 알이 나서 "까리"라면서 나를 가리키는 말과 나의 심사원
 데로스나첸코가 나를 안내한다 차가 몇 분간 달리더니 창고 비슷한 길라간
 관청 건물앞에 와 선다 심사원이 나를 데리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 온다.
 건물 안쪽의 실이 의복 수천벌이 걸려 있다 이것이 라죽은 사람들의
 의복이라고 생각하니 얼어 나뭇해 전라 심사원이 나보고 - 여기서
 항상 이 따음이 드는 의복은 골라입으시오 지금 입은 의복은 ^{입고}이리로
 가십시오 - 한다 나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의복을 골라입은 카운이 앞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나 갖지는 대로 짐이 없말라 그랬더니 심사원이 나보고
 - 왜 좋은것을 골라입지 못하리 그런것은 아연소요 - 한다 나는 아무
 대답도 안했다. 심사원이 이 건물에서 나와 나를 데리고 여와 비슷한 건물로
 들어간다 이 건물 안에 길라간상이 있는데 그 상이 자르들로 호수천
 개의 공청증이 놓여 있다 나는 이 수 많은 공청증을 보고 이것이 흥살당
 했거나 감옥에서 선업하는 공청원들의 명증이 ^{부족}인것을 생각해 보니
 가가 막힌다. 나는 그때 공청원이라 쉽게 명증을 찾았다. 이 건물에서
 나왔던 건물 앞에 까리지는 없고 승모차 한 대가 서 있다 심사원이
 나를 차에 태운다 모를듯 못 태서 우리가 한승모차가 공화국 내무인민
 위원부 건물앞에 와 선다 심사원이 나를 데리고 건물내로 들어간다.
 국장실이 한참 있다 국장이 나를 데리고 오라 한다. 국장이 일어나서
 나와 악수하고 나를 앉드라 한다 국장이 나하고 하는 말이 - 당신이
 감옥에 와 있는것을 노여워하시오" 하리 내란을 쫓던 나 들서 친을
 쫓아 낸다 그속에서 ^정한장을 내 앞에 내놓으면서 읽어 보라
 한다. 나는 그 조이에 쓴 글은 라 읽은 생각이 없었다 그제 누구의 수를
 인가를 볼뿐이었다. 내가 - 알만 할나리" 하리 그 종이판을 국장에게
 드로 주었다. 국장하는 말이 "당신 무친이 쓰미는 주권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나리" 말을 하리 한다 그 안 하리 열은 ^한했습나리 하리 나는 이어지
 을 열은 알수 있었다. 국장에게 이어지이 관한 말을 물어보고 싶었으나
 그만두었다. 국장이 나보고 - 당신이 짐이 가서 나 사람들과 볼말을
 말해서 안 됩나리 그것은 당신께 물어봅나리" 한다 나는
 - 오지 알았습나리" 하리 국장 양에서 나왔다. 데로스나첸코가 가리키는
 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빌노들이 들려 막은 안으로 들어온다 ^{들어}말라
 서니 관청 역은 짐하나가 있다. 그 안으로 들어가니 ^{들어}관청이 있다.

레코스나채널코가 -이문을 잘 대접하시오"라곤 권연씨 경령 한다
 권연이 -예, 알았습니다" 하곤 기학한다 심사원이 나보고 그러면 석사를
 하십시오, 한시간후에 또 오겠습니다"라곤 나간다 후사원이 아침식사를
 가져왔다 그리고 프리김이 잘 먹었다 심사원이 들어왔다 -식사를 하였습니다
 라고 나한테 묻는다 내가 -예, 많이 먹었습니다"라곤 심사원이 나보고 여제
 열두시가 되면 강선부인이 강선레리려 옵니다 그러다가 길은 뜻밖은 가봐
 강선부인을 또 데리렀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나와 통잡한다

이 심사원은 소악하고 침착하고 체질 있는 사람이다 이 심사원도 사살은
 푸른보자른 쓴사람이다 2 당시이 푸른보자른 쓴사람은 이 여제에게나 사람들은
 못되게 죽었는지 아이들이 울다가도 푸른보자른 쓴사람을 존칭하곤
 한다

열두시에 정말 메라가 왔다 심사원이 나더치를 보고 - 똑똑히 보시오
 저분이 강선부인이 옳소"라면서 통잡한다 나는 나의 심사원을 인식하곤
 메라를 데리고 여기까지 나왔다. 심사원이 많게 나와서 우리를 전송한다.
 푸이류코로 나왔다 거기서 걸어오는데, "죽은 꼴로"는 천수들이 우리 보고치를
 하더라 한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고 두리서 걸어왔다 김이 들어서기 어머니가
 기쁘라곤 있었다 나를 토음하곤 후신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보고, "두시기는 때
 어심니까, 내가 물어 왔는데"라곤 어머니를 의안했다 내가 물어 왔다는
 말을 듣고 동쪽들이 찾아 왔다 늦게까지 동쪽들과 여제까지 이야기를 나누
 었다

어머니가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 내가 간혹이 우리 짐에서 권총과
 만동 메라가 나다 보니까 ^관소문을 여려한 사람이 편했다. 내가 출간 강
 령과 ^관연차복강 됐다"라신다. 그래서 ^제메라라고 알고 있습니다"라 했다.

이것은 다 큰 문제가 아니라 몰 잠려 간 식후이 라고 해서 유치원에 서
 일하던 나의 처를 면봉광으로 모른다 아이가 어머니의 짐을 못 먹어서
 그릴까 생각한 어머니가 ^제메라만 안다 때가 늦었다 죽어 죽었다. 두산
 한 ^관관도 잘 거꾸지 못해 죽었다. 두산 동안이 죽어 죽었다. 이 일과
^제메라이 이 죽을 아껴 버리 못해 메라와 10명 ^제이들이 죽어 죽어 살아 남았다
 하길 여려 죽을 내 속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다 이사후 한해 동안 우리 포함
 여제까지 백여명 ^제이들이 죽었다. 그릴 밤에 있다 아이들은 유르파
 생활을 하다가 여제까지 ^제메라가 권려 죽었다 이것이 이사후 제일 큰 비극
 이다 그러나 정권 강국은 아랑 못 안한다 어느 한 ^제메라에서 돼지 색끼

몇 마리 죽게 되면 꼴루르 책임을 물어 놓고 야간철라 지어는 출라
 끼지 할라 그러나 조선 꼴루르들이서 아이들이 우리 죽임을 해도 걱정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라 과연 적은라 흥분한 일이라
 순서 없이 여기서 할라 지러 보내려 할라

일문이 전쟁을 말말하게 되면 조선사람들이 일본편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조선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안아세 아이 몰아 내고 큰 무당이
 위험에서 조선사람들을 대공적자를 하는지 알지도 모른 일이라 조선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들에게 죄안공판등을 내 준 것이 사실이 아닌가 조선청년
 들이 큰 인부에서 제외되고, 기술 대학 등에서 알지 않고 흥분 법도가 제 단
 쇠라 이에서 더 큰 모욕과 열사와 관사가 ^관있는가! 흥분 청년들이 전선에
 내 보내 갈라고 애걸 했으나 쓸데 없었라 일부 청년들이 다른 민족의 성을
 빌려가지고 전쟁이 참가한 일이라

나는 "극성 꼴루르"에 왔으면서 주로 문화사업을 했다. 1백보르비고 농장을
 돌아 다니면서 국내의 정세도 이어 가라 극수한 조합원 들에 대한 관찰도
 했다 꼴루르이 구락부를 건설하는 데 내가 많은 힘을 썼다. 어느 한 꼴루르
 점령부 회의에서 흥분 구락부를 건설하자 이편은 제외하자 다수 점령부원
 들이 내편을 반대했라 꼴루르에 들어 왔라 할라 그때 꼴루르가
 장이 긴 10명화다. 이문은 내가 재피거우에 왔을 때 우리 하는 친구라
 그때 나는 소년 단원이니 10명화는 공칭원이었다. 내가 꼴루르에
 구락부를 건설하자고 10명화 ²아득 바득 졸라 했라 그랬더니 10명화가
 점령부를 소집하라 꼴루르이 구락부를 건설하러로 결정했라 시작이
 전만이라 할때 만이 꼴루르이 구락부가 일떠설라 구락부에 영화가가
 배치되고 도서관이 있었라. 구락부가 문화 중심지였다. 조합원들이 저녁
 이편에 여기와서 영화도 구경하러 책부원 들을 읽었다.

1943년 8월 15일이 어머니의 환감 날이라 한도령생 조련한 날이 없이
 산재 팔 날을 겪어 오신 어머니를 위해 환감을 차리고 동리 할터너들을
 모셔와고 하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 사람들이 전쟁 판에서 죽어가고
 너의 아버지도 안 돌아 오잖아 너네 내가 여간 잘게 편안이 있어서 환감날은
 말짚느니라.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하신라 그러시 내가 - ^{너네가 민족이} 거간할라
 말씀안마라" 하라 환감날을 편편라 그러다가 1945년 5월에 전쟁이
 끝나자 7월에 어머니의 환감을 차렸다.

김영양 - 하이쿠스크

1945년 8월 9일이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쓰리드나. 친척크 구역 군사동원부에서 처음 조선사람들을 군인복무에 부른다
 그때 우리 조항이서나, 김학천, 오카환이 구역 군사동원부의 징병장을 알았다
 징병장을 알아든 나더 기쁘든 두가지라 첫째는 조선사람들을 군인복무에 부르
 이저는 조선사람이 사람의구실을 하게된다는 기쁘든 둘째는, 조선에 가게
 되면 흑아머지를 만날 수 있라는 기쁘든 이라

그때 라스켄느 즉 각 구역에서 25명이 징병됐다 8월 15일이 (날과 똑 소
 못하다) 우리 일행이 라스켄느를 떠나 연해주 무석리아스크 시에 도착했다
 이 시에 2-3년간 체류하면서 연해주 군사동원부의 해방한 지시를 받고 군복을
 입고 어느 관 포병부대에 편입되어 중국 도시들인 훈춘, 룡정, 길림 ~~등~~ ^등 ~~곳~~ ^곳 ~~을~~ ^을
 지나 조선 땅이 들어섰다. 군용 열차가 동성역에 와 간다는 풍성서 "선동박이"
 선 내 고향 봉산 동이 도착이라 사람이 제가만 땅을 여러 밋을 수 있겠는가
 들어가 보고간 생각이 간직되다 그러나 군인원복이라 할수없이 봉산들은 아라
 보고만 있었다 우리가 한 군용 열차가 풍성, 회천, 무명, 청진, 죽은, 평원, 관천
 흥천, 흥보, 함흥, 고원 그 밖이 갈도 역들은 지난다 우리는 이역들에서 시편
 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시민들이 조선음식을 많이 갖추어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먹으라한다. 너러나기에서 우리를 포옹하든 유는 사람도 있었다.
 어린아들이 우리를 들너싸고 웃으면서 기뻐한다 그 때 이 장면을 나누지급도
 잊이 않는다.

시민들이 우리로고 이런 질문을 한다. 러시아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군인복무를 할수 있느냐? 이 때 까지 어떻게 조선말을 잊지 않았느냐?
 소련에 조선학 권가였느냐, 음식제도는 어떻게 하는가? 갈도 질문을 했다
 드디어 8월 29일이 우리 군용 열차가 평양역이 들어 섰다 평양
 시민들이 "무든 끝내든 우리의 해방자!", "무든 끝내 만세!" "조선 헌법
 소련 헌법 헌신 만세!" 기라 말도 프차카르, ~~등~~ ^등 ~~과~~ ^과 ~~와~~ ^와 ~~연~~ ^연 ~~결~~ ^결 ~~의~~ ^의
 기쁘다. 그 때 열이 눈이 환하다.

나는 평양에 도착하자 25권간 무로 정치무이 개치 됐다 무로 정치
 무에서 일바간 일하라가 평양 양동국이 개치 된다 정치무의 명령은
 갈도 ^{조선의 파괴원} 양동국에서 일을 시작했다 소련기술자들의 아낌 없는 양조로
 단기간 내에 양송시설들은 복구하든 양동을 시작했다. 해방된 조선
 사람의 첫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시민들이 제편으로 전하는 씨소식,
 사회인사들의 연설, 노래를 듣고 적 만가어 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망송을 악의로 처리하는 사람들도 없었단다. 어떤
선례가 없었다. 한편은 소련군 망송연(그때 소련군 망송연이었을지)
다 끼쳐브와 일을 끝내고 짐이 돌아오는 길에 우리끼리 둘러싸서
다 끼쳐브가 정상은 임은 일이 없었다. 그때 어떤 일이 자로 있었다.

~~북조선의 소련군에 의해~~ 해방 전 ^{북조선} 북조선이 모란봉 경기장이서 처음으로
28주년 10월 혁명 기념행사가 성대히 진행됐다. 나도 이 기념
식이 참가했다. 그날 저녁 25군 사령관 최석재, 대장,
북조선 립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만식은 이룩한 사회계 인사들이
등장했다. 최석재 대장이 기념 보고를 하러 조만식이 축하 연설을
했다. 최석재의 보고를 전 동혁이 번역했다. 기념식 직후
같이 김일성도 있고 그의 측근들도 있었다. 이날 나는 처음으로
조만식을 보았다. 흰 두루마기가 흰 수건으로 머리를 지그시 둘러
머리는 작고 편이다. 이분이 조선 청년 계이철이 알려 주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기에 조만식은 두심히 ~~보았다~~ 눈여겨 보았다. 조만식
선생의 차후 명령이 때때 차츰 야간 말하곤 했다.

그 당시의 평양시와 북조선의 도시들과 마을에 서로 친선운 내용으로
한 문어들과 주호들이 ~~평화~~ ^{평화} 평화의 말이 나뉘어 있었다. ~~백스-영제스~~
레이브, 스칼라 호상화 등 역들도 진행되었다. 매년 8-15 기념행사가
평화히 진행되었는데 2 기념행사에 김일성이 ~~사관적~~ ^{사관적} 사관적이 없었다.
김일성 자신이 조, 소 친선운을 ~~물론~~ ^{물론} 이라고 하였다.

1947년 1-2월에 평양시에서 도시, 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진행
됐다. 이 대회에서 스칼라 리 대원수에게 보내는 감사문이 채택됐다.
그 감사문의 첫머리에 이런 말이 있다, "평화와 안전을 간망하는 전
인류의 대양이시고 불의와 침략이 가져 무수한 속에서 태어난 인민을
광명의 세계에 오르게 한 회색의 후원자 스칼라 리시여!"

김일성이 이 대회에서, "오늘 북조선 인민들의 번영과 번영의 앞전에
있어서 소련의 만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다. 그 당시 김일성은 소련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몰칭이 몰칭이적 생각을 뜻하고 개구리 원생각 ~~만~~ ^만 만만하다는 격으로
김일성은 ~~원~~ ^원 원만하게 한 ~~말~~ ^말 말은 다 자백고 ~~외관~~ ^{외관} 외관 소리를 ~~하~~ ^하 하 있다.

1950년 8월 광전위원회가 있을 때 소련에 대한 김일성이
태도가 180도로 ~~변~~ ^변 변했다. ~~만~~ ^만 만조경향이 ~~로~~ ^로 로 ~~전~~ ^전 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2번 이유가 있다 시이사왕이라고 시간이 가면
 사물이 변하는 법이라 소련에서 1953년에 독재자 스탈린이 죽고
 흐루쇼브가 정권을 잡았었다. 흐루쇼브가 정권을 잡은 첫날부터
 스탈린의 반례를 낱알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은 뒤집어 먹은
 김일성을 등살이라 해서 독재자 목책동을 등이지고 소위 "사상검토"라는
 표명하에 소련, 연안, 남조선에서 온 육군간부들을 죽이고, 가두고
 짐때를 붙이고 외국으로 추출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소년단, 공청에서
 자라 임당한 강연들은 실목하기 위하여 라는 것은 깨닫고 이주도한
 순책과 망명으로 소련서 온 간부들은 수형했다. 허가 이를 암살한 사건이
 이에 대한 실례의 하나라 이런 실례도 있다 김일성이 허가편은 김대
 홍장 두 성훈은 몰려 놓고 - 두 성훈 동무, 허가 의류미 미색을 세우는
 것이 여경미소?" 라는 불었다 고지식한 두 성훈이 - 그것이 좋았습니까 -
 대답했다. 그 후 두 성훈이 김대 홍장에서 쫓겨났다. 소위 국가를 다스린^다
 사람이 ~~이렇게~~ 망명으로 사람을 잡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홍길동~~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홍성관 여첩이 홍길동을 암해하기 위해 꾸려낸 추악
 하고 무랄한 행동은 만물케 한다

"사상검토"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가리라 6.25에 대해 장간
 말하겠다

6.25 전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하는 문제는, 군사전문가들, 철학
 학자들 2쌍이 권위 있는 인사들이 묵침을 증명했다. 나는 굳이 아니라
 그렇기 때 이 문제가 언급하지 않고 6.25 당시의 우리 반동일꾼들이
 어떻게 일했는가 이에 좀 자세히 말하겠다.

북조선 망동이, 6.25 전쟁은 출두고 리승만 군대가 전쟁은 끝이 아닌
 있고, 인민군대가 38선은 넘어 들어 올 리승만 군대에 안적은 가하리 말다
 본도를 매서간 전했다. 6.25 전쟁이 말말 되기 전 3일전에 ~~1만~~
~~선~~ 중앙량 선전부감 1만 창목이나를 부른다. 그래서 선전부감은
 찾아간다 1만 창목 선전부감이 나 보고 - 내 말을 자세히 듣고, 이제
 사흘 후에 무슨 사면이 있는 것이오. 동무는 직장에 들어가서 즉야 작업을
 조직 하고 우수한 망동원들을 어리쿠 보내지 마오, 이것은 동무만 알고있고,
 아무와도 말하지 마오" 한다 나도 무장실에서 나와 직장에 와서
 24시간 강권제를 조직 하리 일군 망동원들을 어리나 보내지 않고
 있었다

한 직원이 나보고 - 워런장 동지 저 돼지를 잡음시다 - 한라 그대 내가 -
 그대서는 안 되오 주인 허가 없이 어찌 남의 물건이 손을 댈 만 말이오, 이애고픈
 대로 참소" 했나 죽일라가 또 한 직원이 돼지를 잡자고 나를 졸라 댄다 그대서
 내가 저 돼지가 폭격이 죽는 것 보라 이애고픈 사나들이 잡아먹는 것이 보지 않느냐 -
 생각하고 직원 보고 - 그러면 당신들 소원대로 하시오 - 하나 좋아라하리 직원들이
 손을 걸고 재빨리 잡아서 솥에 넣고 끓인다. 역시 황혼이 깃들었다 죽인이 들어
 본다 라든 강황해한라 내가 죽인 보고 - 죽인 것이 없는데 도적행사를 해서 안
 됐습니까 - 하나 죽인이 - 원, 천만에 만났습니까 돼지를 잡기를 잘 했습니까
 먹일 것도 없거니와 폭격이 없어 질 수도 있습니까" 한라 죽인이 우리가 애고픈 줄
 아나야는 모양이다 결양으로 들어가더니 좀 쌀 훔은 내가 죽면서 양을 줌
 라고 한라 직원들이 열서구나 좋아서 죽인이 죽는 쌀은 1만감끼 1알 가져고
 양을 줌었다 고기와 양을 푸어 놓고 이애고픈 김이 잘 먹었다 이 김에서 자고
 푸름해서 길을 떠날라 이 김에서 나오면서 죽인 보고 - 적지 않든 고기 같은
 말은 시오 - 하인 돈을 죽이 - 그제 무슨 만났습시오. 나도 같이 먹었더니 그대
 만체를 배움았는데 - 한라

이 짐을 떠나 자강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벌타이 도착 하와 물의에 적기
 한 때가 폭탄을 내치련라 그대서 직원들이 칼가에 앉는 초가 점이 들어가
 몸을 감추었다 곧바로 기습이 폭풍에 죽어졌다 적기가 간혹 직원들이 죽어
 짐승에서 나왔다. 그날에 정리무장이 파면에 팔을 상한라 가세봉대가
 있어서 고의를 쫓아가지 산채를 빼냈다. 1월타를 떠나 한참가는 라나
 개천이 보인다 직원들이 목욕하리 한라 내가 좋아고 했나 전쟁사라
 목욕도 제 때에 못하리 배타를 못 갈아 입어서 몸을 서서 (환)들이 득실걸인라
 결례 내기 힘든었다 그대서 보드라 배타를 벗어 들어가 우들이었다 이가 죽으
 리라. 이런 "우쾌한 노름은" 한참하는 데 난데 없는 적기 두대가 우타를
 알면하고 배타 쏜다. 적기가 풀속에 들어가 몸을 피했다. 그대서 한참
 분라 한참에 나자 날리는 조각들이 러 죽어웠다 부상자는 없었다
 구사일생으로 거이한 죽인만이 자강도에도착했다

그대 자강도이 지방 1만송죽이 있었다 그대나 총력이 약해서 원거리에서
 들지 못했나 여도시이 와있는 그대 전 직원이 분산한 면 했다. 한 번은
 점심시간이 돼서 취사실로 모여 보는데 "미-29" 두대가 활타드라
 온데라 보니 우타를 폭격 하리 라는 것이 흔림이었다 그대서 만타를
 방공호로 들어가라 내가 소리 칠라 방공호에 들어가라 나자 폭음이 30

키를 재는 듯 하라 좀 잠잠하라 방공호 속에서 나와보니 우리 식량이 직한에
 낫아 간에 못이 없다 2대 적기들이 좀 환듯에 나와 들었더라면 우리 적원
 들이 점심을 먹다가 몰살했은 것이다 지금도 2대 일을 생각하면 몸이 소름이
 돋는다 하라 "비-29"형 새대가 자강도에 휘발유를 내리 뿌리고
 불을 갈았다 자강도 (강계)가 제반하여련다 이런일이 있을 후 자강도에 러
 었을 수 없어서 망송국이 만포로 이동했다 여기 와서 립시로 망송국을 설치
 하고 망송했다. 세월이라고 짐작 된다 적기 두대가 갈려들어 자강도
 형식으로 만포이물을 질렀다 2달 1명 월에 있던 환자들이 병실에서 막혀
 나오지 못해 라 하죽은 일이 있었다 여남 시병들도 적지 않게 죽었다. 립시로
 설치했던 망송국도 소각 됐다 그래서 비가 망송원 몇 명과 기술자 몇
 명을 데리고 만포에서 거기 40리나 되는 고산권을 완회하면서 망송했다
 2 량시에 여기에 근대 망송국이 있었다 고산권은 중국이 지척이라 그래서인지
 긴 일성이 자기의 라줄들을 데리고 여기로 피신했다.

1951년 15일에 망송위원회 전원이 만포를 떠나 선참으로 단량양에 들어
 왔다 거리가 항항이었고 아직 건물들이 다고있고 연기가 자욱하라 전쟁
 불'길이 금방 꺼진 것 같다 말 붙일 곳이 없다. 상임위원회 방공호가이었던
 이 속에서 언젠가 후회 할 때 사람들은 출사했다라 혼자 참는 피눈물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은 가릴 때가 아니었다 적원들이
 방공호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일에 착수했다 제법 충분한
 물체가 음식수, 전기, 식량 물체다. 이물체들이 점차적으로 이력 저력 풀리었다.
 미군과 리승만 군대가 내리리고 간 홍조림, 사한, 가름, 가류역 등 21곳에
 식료품 등을 모아 르렀다라 마른 대로 먹어 살수 있었다 그러다가 식료품에
 독약을 섞었는가 해서 처음엔 먹기 서슴서슴했다 알고보니 그런 것은 없었다
 휘하 민족 국가들에서 원조 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먹고 있는 물체가
 마르면 고이른 넘었다 적상은, 국들이 단량양에 들어왔다 거리가 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수도가 복구되고 상점들이 열렸다. 학교 1명원들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폭적이 심해서 사람들이 폭격속에서 살아야
 했다 2건도 습관 돼서 살수 있었다. 이때 1월 쯤 불란 봉지라
 극장이 건설되고 방공호짜를 닦았다. 망송국이 본란봉 방공호로
 이동했다. 좀 안전한 데서 망송할 수 없었다 적기들이 배일
 같이 본란봉을 폭격한다. 동경 망송이 1말갱이 망송이 러는 없다
 수차 전환라 그러나 우리 망송이 정지되는 날이 없었다

여기에서 기뻐할 한가지 사실은 ^이히려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1951년 8.15를 대대적으로 기념하기로
 했다. 중앙당 지시에 따라 각종예술단, 무용협주단, 체육단, 학생
 등이 기념준비를 ^이만들었다. 양흥기연회가 이라체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 지시하러 망송한다 지어=날=이=시에 ~~어~~리서 이연연예술단이
 출연할라는 것까지 망송한다 그런데 전쟁시에 중앙당 지시에
 의해서 ^기일보예보가 끊기 됐다. 일기예보를 듣고 적기들이 폭격하러 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적기가 평양 일기를 흔들리었다
 8.15를 앞두고 망송이 자세한 예술 프로그램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내가 선전부장을 찾아가서 8.15 예술 프로그램을 계속 해도 좋을지가
 하고 선전부장을 보고 물으니 - 그냥 계속 하오 무서울 것 없소 중앙당
 지시도 한다. 내가 속으로 - 아무 공중 망케도 없이 무엇을 보고 저런
 대담한 소리를 하는가 - 하리 생각했다 가리알수 있는 일이다
 전쟁 당시에 쓰팔린 이 모스크바에서 시업구역 명은 광량리 기념
 했라 크레트리 극석단이 쓰팔린은 미혹한 강, 국가 지도자들이
 등단했다. 그때 모스크바 상공 양기가 팔래 일었다 적기들이
 함부로 못 보아 든었다.

아마 김일성은 이것을 알고 자기도 한 번 전쟁시에 8.15 기념
 하면서 대담성을 ^{한번} 자랑해 보겠다는 허욕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8월 14일에 전쟁 개시 후 제일 큰 폭격이 있었다 적기 "미-29"
 120대가 동원됐라 한다 마침 흐린 날씨였다 폭격이 거이해서 나
 계속 됐다 이날 밀집 지대 처프링양이 제일 큰 손실을 당했다
 점들이 다 파괴되고 많은 시민들이 죽었다 ^이뜻이 큰 폭격이 있어서
 밤에는 ^이있으려나 하리 ~~이~~사 ^이사람들이 ^이침에 있었다 그런데
 낮 폭격 본래 뜻지 않은 ^이콜 야간 폭격이 일었다 이 폭격이 사람들이
 우리 죽임을 했라 자동차 ^이들이 시체를 실어냈다 얼마나 죽었는지
 모른다 이에해서 미군이 있었다. 지르도 그때 사람들의 울음소리 내
 피에 ^이쟁쟁하다.

김일성을 미혹한 당시 지도자들이 8.15를 앞두고 적기들의 폭격이
 심하리라는 것을 예견해 사람들의 ^이주 ^이환기시켰다 ^이년 ^이말은 ^이사람
 들의 ^이생명을 구했는 것이다.

김일성이 ^이라 책임질 ^이사람이 ^이없다 그러나 ^이역사는 ^이죽지 ^이않는다 ^이

엄중한 사실이 라는 는 외부 되지 않기 위해 후대들이 알아야 할 것 이다

극락 된 사실은 이미 침묵 하였다

1946년 여름인지 뚝뚝치 못했다 그때 거리가 많스-엔겔스, 레닌
쓰갈린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어느 날 밤에 이 초상화들이 기총사격을
받았다 이 사실을 둘러싸고 말성이 많았다 그러다가 이것은 조만식이
조직한 것이라는 어느 한 사람의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하루 사이에 조만식은
재판도 없이 "괴뢰 호헌"이 가두었다 그리고 그를 엄격히 감시했다
6.25 전쟁이 시작됐다 후회 시기에 조만식은 재판도 없이 총살됐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다. 출판물이나에 대한 사실은 실지 않고 양동이 침묵은
지어었다. 북조선에서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잘라 봉개는 것이 반대로
됐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엄격적 행행들이 폭탄이 날아나기라도 하는
준비 된다.

전쟁은 사람의 양심과 심리를 대는 라침판이라고 할수있다 평화
시기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정작 전쟁이 시작되니 친구고 뭐구 다
잊어 버리고 제살 구렁 반파는 사람들을 보는 보았다 내색을 하지 않
고 양양이 있는 줄 미안히 알면서 나보고 식솔들을 빨리 소개시키라는
친구 ~~친구~~ 하나도 없었다 10월 10일이라고 생각 된다 이날이 늦기
까지 사를 시에 일하는데 허가이 전화로 - 남동무 식솔들을 보냈소 -
한다 그래서 내가 - 무슨 아직 식솔들을 보내라는 상무의 지시를 못 알았
습니까 - 하니 허가이 - 래일 저녁에 서평양역에서 중앙강
물건을 실을 기차가 4호, 2기차이 식솔들을 자강도로 보내오"한다. 2
랑시에 기차가 늦게는 못 간다고 많이 관했다. 식구를 기차에 보낸다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인 줄 미안히 알면서도 할수없이 보내야 했다. 2
기차에 두리 식솔들 많이 있었다. 이날 저녁에 깊은 대강대강 꾸려
가지고 식솔들은 데리고 평양역으로 나왔다 화물 열차가 서 있다 내가
역장 보고 - 이차에 식솔은 보내도 좋겠습니까? - 하니 역장이 -
그런 지시를 알았습니까, 미안히 해주시오"한다. 많이 딱 늦었는데
기차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역장보고 - 래기차가 안 떠나
습니까? - 지금 광광 2호는 떠나 강에 가지시오"한다 내가 안신
하고 잠이 왔다. 그후에 안일이 지면 2날만에 기차가 안 떠나고
있다가 새벽 4시에 떠나 가다가 평양서 멀리 갈은 흥성리밭에
갔다 세웠다. 2날 열 두시나 돼서 "미-29"형이 와서 허벌은 폭격했다

적기들이 흥성 허탈이 두터운 줄 알고 허탈의 좌우편이 반쪽 한은 내리 부엌과
 사실 흥성 허탈 두터이가 네테할 밖에 안된다 만약 그날 적기들이 허탈 북판을
 폭격했다면 우리식소들이 전멸했을 것이다 그때 서평양역에 잠입한 미국
 간첩이 역장과 짜고 기차를 안보내고 입자가 고이적으로 들어 쓰자 흥성 허탈이
 몰아 넣었다 그날 저녁이 늦게 사무실이 알아 왔는데 계획이 원장 장을 백이
 전화로 - 위원장 동지 식소들이 흥성 주축이 있습니까 10만 리가 리터 오시오 - 한다
 그때 내게 차가 없고 다른 사람의 차도 믿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걸어서
 흥성 허탈은 찾아 간다 많중이다 내가 주축이 들어가니 아이들이 그때
 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불속에 파묻혀있었다 그런것은 이북자리,
 손가방, 열체 소지품을 주축이 몰래 나 머리고 식소들만 땀이 가지고 평양이
 들어 왔다가 평양이 2-3간 언다가 조영철의 차편이 식소들을 좌강도로
 보냈다 여기서도 안전치 못하^{해서}고나어 식소를 할민으로 보냈다 그 당시
 1949년 9월이 평양에서 태어난 세째 아들 보와가 할민가서 10명이
 걸려 생명이 위험하게 됐다 중국 의사가 아이의 생명을 구원했다 그
 은혜는 내산 같다 그러나 나는 그 은혜를 못 갚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잊어 않고 있다. 알뜰이 된 내 식소가 할민이가 이모처럼 중국
 정부의 신세에 살다가 정전이 되자 평양이 왔다

식구가 할민에서 오기도 했으나 평양이 살풍경이다 말물일곳이 없다
 사정이 딱하게 됐다. 그래도 여기 살려 있긴 하지만 ^{내가}한봉 망공호 주의를라
 돌아 보았다 결국 폭격이 역만 남은 짐 하나를 알현한다 2점을 대강수리
 하고 식구들을 살게 했다. 이집에서 거의 일년이나 고생시켜 살파가
 근시안산 가슴에 2층 간부들 집의 주책이 건설 되자 거기서 이사했다 이
 주책은 이교적 현대적이다 관양 장치, 목욕탕, 수도 리암의 편티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런대로 살수 있었다 하루는 1메라가 나보고 하는 말이
 -이집은 정전도 되고 살만한 집도 없으니 우리 어머니를 논서 용시다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하고 1메라를 유리에크스판으로 보냈다 그때
 어머니가 "극성 포함"에서 말라갈과 같이 게 될다. 그런데 수속이 잘
 되지 않아 1메라가 "극성 근호르"에서 좀 늦게 됐다 그래서 어머니 1메라
 보고 하는 말씀이 - 나는 뜻가도 일었다 딸은(내가 그때 몸이 1명이 나서
 심원 중이었다) 사람을 두고 와서 그렇게 오래 있어서 되질야, 10만 리
 짐으로 가거라 - 한다 1메라가 속히 짐으로 가라고 어머니가
 숙편제를 과음하리 세상은 떠나설라 이것은 미루이다 자식이 대한

이 대화가 끝난 저녁에 내가 전 동혁을 찾아 갔다 내가 동혁이 보고 -여보, 동혁이 한설야와 같이 인도로 갔을 때 한설야를 죽이라고 좋은 골목으로 끌고 들어 갔다는 것이 사실이오? -하리 들으니 - 동혁이 내가 뒤속이 관해서 한설야를 죽인단 말이오, 그사람들이 꾸러낸 말이오 한라 그래서 내가 - 2리던 때 만약을 못 했소 -하니 전 동혁이 - '만약해임 쓸데있소 자꾸 권능이 어는 법이오 - 한라 내가 기석복을 보고도 어떤 항의 비슷한 말을 하니, 기석복이 - 병식이 자기가 강해 보지 보지 못했으니 가라는 말이오 정작 강해 보오 - 한라. 그래서 내가 - 석복이 사람을 잘 못 알았소 나는 정장이 아니오 잘 뜻이 있는 이상 그 누구의 옆에 굴할 생각이 없소 -했나 나는 석복에게서 이런 말도 들었나 - 나는 그날 너무나 격분하고 원통해서 리동강이 나가 마저 죽을 생각까지 했소 -한라 내가 - 그것은 미감한 생각이오 강선이 죽는 데 해서 그사람들이 기이려 할 때 지어 정 눈물을 흘릴 줄 아오, 만종파분과 한숨이 있어 젖고 좋아할 것이오 -

이 대회에서 막창목의 천주한사관인 리문일의 호른이 고니 씩라기 작적이 있었나 리문일은, 자기가 그 누구에게 잘 ^보 일려고 막창목을 문합하는 비련하 이상심적인 발언을 했다 리문일 - 저 막창목이 라는 내가 "정로신분" 즉 필로 율정적에 나를 찾아 와서 돈 비리질 하기래 내와 돈이 없나라 하니 이렇게 큰 신분사에 그만한 돈이 없겠는가 하길래 내가 신분사 돈은 줄수 없나라 라고 말했나라 아주 자랑스레 말하되 이것은 보신지 책에서 리 넘지 못하는 말이다

막창목이 가른 것은 몰라도 돈 문제에서 보아서는 아주 청렴한 사람이라 막창목이 장기간 회고 간부직에서 일했는데 그 장에 들어가 보면 긴박 때를 둘러도 저칠 것 하나도 없었나 ~~회장이 같은 사람을 직에서 쫓겨 나가자 할 때~~ ~~이런 실례도 있다~~ ~~막창목이 회직 되서~~ ~~우리 점~~ ~~이와~~ ~~있었다~~ ~~하루는~~ ~~막창목의~~ ~~처가~~ ~~손가~~ ~~안~~ ~~하루~~ ~~를~~ ~~듣고~~ ~~온~~ ~~라~~ ~~와서~~ ~~이~~ ~~가~~ ~~안~~ ~~을~~ ~~두~~ ~~었~~ ~~다~~ ~~말~~ ~~하~~ ~~라~~ ~~한~~ ~~대~~ ~~면~~ ~~서~~ ~~가~~ ~~안~~ ~~안~~ ~~에~~ ~~이~~ ~~별~~ ~~것~~ ~~이~~ ~~있~~ ~~습~~ ~~다~~ ~~스~~ ~~침~~ ~~말~~ ~~이~~ ~~스~~ ~~침~~ ~~갈~~ ~~때~~ ~~말~~ ~~리~~ ~~고~~ ~~가~~ ~~자~~ ~~르~~ ~~있~~ ~~던~~ ~~현~~ ~~점~~ ~~피~~ ~~들~~ ~~어~~ ~~있~~ ~~습~~ ~~다~~ ~~라~~ ~~한~~ ~~라~~ ~~내가~~ ~~-~~ ~~넘~~ ~~려~~ ~~까~~ ~~서~~ ~~고~~ ~~두~~ ~~심~~ ~~시~~ ~~도~~ ~~-~~ ~~했~~ ~~다~~ ~~라~~

회창목 같은 사람을 직에서 쫓겨 다른 데로 이사할 때 짐이 세차나 됐 라고 한다.

나의 "사상검토"에 대해 도약해서 말하겠다.

북조선에서 사임하러 노련조선인간부치고 사상검토의 그 뜻이 안걸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악명들은 "사상검토"에 대해 직접 사상검토의 뜻
맞을 뿐 나의 동지들이 잠리와 선들들이 많은군을 쏘라 그러길 내 이글제를
구해이 말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사상검토의 형식이 각이하라
그래서 내가 랑한 "사상검토"를 후려서 적어볼가 한다.

"사상검토" 사전에 내몰래 중앙랑이서 온 두사람이 1양동원^{II}을 들출라,
내원전수를 분출한다. 직원들과 각화한다 ~~동여~~ 호른을 들이한다 등
여러가지는 변설히 들이한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한이런은 나의
원전수가 나보고 - 위원장 동지 랑이서 오신분들이 위원장 동지의 선물을 나
하고 물어볼가 - ~~말라~~ ^{말라} "사상검토"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한다 그래서
내가 0-적정까지오, 내가 알고 안소" 했다 그때 책임자 원전수들이
원전부와 연락은 가지르 있었다 그러이래 원전수와 함부로 말할수 없었다.

사실 나는 "사상검토"가 언제나 시작되는가 해서 고민했다.

1957년 2월 21일이 드디어 1양동위원회 초점랑총회가 열렸다.
총회이 중앙랑이서 지도원 김증기가 참가하고 회의 중요성과 긴장성을
강조하기위해 김일성동생 김영주가 참가한다 이 사람은 늘 5분이나
10분 늦게 온다. 김영주가 오지되면 다 기림한다. 주석판 ~~오르~~ ^{김영주보다 주석판으로 제한다} 초점
초점랑이서 ~~그에게~~ ^{그에게} ~~제한다~~ 한다. 그러나 김영주는 그것은 사양하고 이
때나 뒤 좌석이 남아 있었다 김영주가 마하집 없이 끝까지 참가했다
그러나 어찌 될 일인지 김영주가 한이런도 1알연 안했다.

초점랑이서가, 오늘 랑총회는 비공개 랑총회라 하리 회의의 정은 말들한다.
우리 랑총회이서 해결할 문제 "남북식 동무" (늘산 동리, 동리하리 부르던 것이
동지라 안 하고 동무라고 한다. 북조선이서 는 하급사람을 동지라 안 하고
어느 때나 동무라고 하교 하급사람은 삼무 사람을 동무라 안하리 동지라
한다. 사람에게 령한 처이들이 북조선 처립 심한 나라를 지구상에서 찾을수
있는 것이다) 사임작풍에 대한 문제 하나뿐이다" 라고 하고 랑중앙이서 온
랑지도원 김증기에게 연권을 준다 김증기는 거이 40분이나 잔향한 면장은
했다. 그의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식은 장기간 조선중앙 1양동위원회 책임자로 있으면서 로동랑원으로
용남 못할 엄중한 1안랑적, 1안인민적 죄행을 면했다 사실은 아깝다:

남북식은 그의 적으로 한 기자가 쓴 1양동기사에서 우리의 여객한선
김일성 수상님(2차례는 수상이다) 명함을 네 권이나 지워어렸다.

1957년 1월 10일에 평양시에서 열린 사랑열성자 대회에서 호른 하라는 사랑의 지시를 거절했다, 전쟁 시기에 남북식의 분전수가 그의 차를 타고 남조선으로 도망했다, 맥언준이 쓴 "미국이여 솟을 뚫히라"는 시를 낭송한 것이다, 전쟁 시에 양과 협의도 안하고 직원들을 강제로 남새 밭을 파르게 했다. 폭격이 심한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렇기도 남북식 엄청난 이강적 행위가 많다. 라고 한다.

양송이원회 초주강 이서도 긴 보고를 했다 그러나 그의 보고가 이상에서 중앙당 지도원이 그럴만한 비용을 되무리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 또 더 읽을 것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이상 문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김일성의 이름을 지워야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갈이상이나 두를 뜻 살게 되었다

호른이 시작된다. 제 마음대로 호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한 명단에 따라 ^{호른과들이} 라에서 걸릴 말은 종이 쪽지에 적은 줄것은 강독한^{감성} 할 때다. 그렇기때 호른 자들의 비용이 비슷하다. 그들의 호른을 중흥하면 아닐까 "남북식은 만장적 만연적 분자라 이런 과를 우리 강이 들수 있나 할시 가이이 강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 때야 우리 강이 조출하^{조출하}는 현명하게 될 것이다 강은 알므로도 남북식과 같은 분자들과 적극 싸울 것이다 등등이 호른이 심어 명이 참가했는데 나를 강에서 보라 내야 한다 등등이 강에 남겨 두자는 호른 자는 없었다. 이것은 마치 알만한 일이다 이상에서 한 할야와 같이 알잖이 명아리 까듯 강에서 까낸 것이기 때문이다

대회의 따라 나보고 자기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자기미만만 양심적으로 하면 강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강흥회의 목적은, 내가 만장행위와 같은 행위를 감행했다 ^부 없으므로 이런 일이 안 볼 수 없으니까 나를 용서 해 주십시오 하고 강회의 이 목적을 풀고 자백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천인공노할 어리석은 짓이 없는 일이다 만장적, 만연적 행위를 감행한 일이 없는 내가 무슨 자백을 할란 말인가 이들의 생각 같아서는 회의를 결의 끝고 ^회를 뜻 걸러가 준다면 결국 자백할 것이고 인정하는 모양이다 나는 겁장이든 아니든 이공은 자도 아니다.

강회대의 전행증에 세면이나 강회의에서 쫓아냈다 내가 회의석에 있으면 강원들이 아래에서 말을 못 할라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강원의 개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안을 강 회의에서 쫓아 내는 것이 강규약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것은 강회가

아니라 일본 헌법이다. - 라고,

광회의 전횡 도를 내가 두어어나 중앙당 간부무관 리호순 동지를 만나
(리호순을 내가 조정한다 일본은 소련군대가 감옥들을 열고 내놓고 문이다)
나를 만감, 만인전적문자라고 합니다 나를 인위적으로 만감적 만인전적
문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어쨌든 일은 어떻게 라면 좋겠습니까? - 하나
리호순 동지가 - 지금 때가 그런 때오 죽참고있소. 동무를 광에서 출강은 못
줄거요 - 한나 ~~선전~~ ^{선전} ~~문화~~ ^{문화} ~~정수~~ ^{정수} ~~상~~ ^상을 찾아가서 이런 맹랑한 문은 할라
히 정수상의 때 감도 리호순 동지가 말한 것과 유사하다 함은 2가지이
리호순이나 히정수이 남분석의 사상검토를 정지하시오 할수 없안라 이월
이런말은 할수 없는 사함을 김일성 하나뿐이요

하엿은 "사상검토" 과정에서 가장 충실하다 양심있고 지혜로운 애국
지사, 사회인사, 학자, 작가, 시인, 작곡가 예술인들이 애매하게 숙청된
사실을 폭로내야 한다. ~~우리후대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안아야 한다~~
~~그책임을 우리후대들이 안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후대들이 이머극적 역사를~~
알수 있다.

회의의 의장이 회의목적 밖으로 나에게 연권을 주면서 간관히 만라라고
한다 내말의 도지는 다음과 같다.

광에서 양송사임을 겁쟁히려 왔다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책임
판리 나와는 아무 말없이 내 뒤에서 겁쟁은 전횡했다 이일이 좀 심심
하다. 더 심한것은 이리만 주대여 만라려 하지 않는다. 더 한가지만
말라겠다. 지난 양송연고들을 들춘다, 직원들과 감화한다 내일전수와 늘로
한다 이 모든것이 왜 미일리에까지 전횡 했는지 나는 리해할수 없다.

나는 내일 전에 참가한 한사람이다 부의무천은 조선 해방을 위해 생명을
까쳤다 (회의석에서 수군수군한다) 나는 6.25를 통해 양송사임이 전력을
가했다. 나는 국가에서 "로력출장" "국기출장2급" 2등이 벼 갠을 말한다.
나는 내가 만감적 만인전적 행동 감행 했다는것을 전적으로 유인한다
나는 내가 안 할일을 했다고 감은 속일수 없다. 감을 기쁘다는죄는 업종
하야. 내가 알전 때 한 양송기자가 쓴기사에서 경애하는 수상님의
아름은 너군 레나 지워이런것이 제일큰 죄질같다 그런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수할수 없다, 듣기 좋은 록자 약이 드한 두어어나 만인전적 문이 있다
45문도 못 되는 기사에서 우리 수상님 이름이 열라섯 번이나 반복 됐라
그래서 필로 이상인것을 지워이런라. 이것이고 의적이거나 아비가 이
래해서 그런 양송기사를 감원들 알기 내놓고 라지는 것이 맹랑하라고 본다

왔습니까 - 한라 그래서 내가 - 경리에서 무슨 부정사건이 있소? 라는 질문에
 경리부장이 - 우리가 장사하는 기관입니다, 국가 예산대로 돈을 쓰는데 무슨
 부정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한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강하게 하고
 검찰원이 왔으며 검찰을 시킬 건이지. 한라 검찰이 시작 된 이후 경리부장이
 수차 들어와서 재정실에서 감사원이 전담시키기야 해능을 한것을 애말리
 들추고 있라고 한라. 그때 내 생각이. 어리 들추지 말라지 무엇이 하나 하나가.
 이채를 질어서 적었듯이 적었지 장사를 했나" 이러했다

일주일 후에 경리부장이 재정실에서 온 검찰원을 데리고 내 말로 들어왔고
 경리부장이 - 이제는 검찰이 끝났습니까 이제 위원장 동지 수표만 두시면
 라 됩니까 - 한라 그래서 내가 - 나는 그 조처에 수표를 들수없소 - 하나 경리
 부장이 - 경리사업에서 들린 것이 없습니까 다 잘 됐습니까 - 한라 내가 -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후적 문제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기관 책임자에 재정실
 에서 ^내 검찰원이 ^내 검찰을 왔다는 말도 없이 ~~안타까~~ 이 때까지 일하다가 검찰
 조처에 수표를 두라는 것이 몰라는 말이요. 나는 안행이 아니고 - 하고 잠깐
 그러자 재정실에서 온 검찰원이 - 제가 사업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실로 했
 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수표를 두어 주십시오 - 한라 나는 그때 그 검찰원의 행사가
 괴상해서 그를 혼내려 했다 내가 조처에 수표라고 검찰원을 받고 -
 다른 기관들이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 했다

나를 "상상검토"를 해서 랑에서 내 잘못과 책임에서 떼어리자 런 야말이
 수표로 돌아가자 또 다른 수표를 꾸며 보라 이번에는 '양승우원회 경리
 사업을 들쳐가지고 무슨 부정사건이 있게 되면 그것은 책임을 삼가지고
 나를 구렁텅이 밑에 넣어 놓으려 런 출책 되져 파한 되고 말았다 이말은 다시
 계속 하기로 ^해 ~~수표 없이~~ 다른 사실을 말하곤 했다

1954년 가을에(날짜가 기억 안 된다) 파란 수도 따르샤와에서 ^{방화}국제리사회
 (약자, 오이르) 총회가 있었다 그 총회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피프로 참석했다 나는
 총회에 개한 이바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때 따르샤와 극대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 대수로 허학봉 선생이가 계셨다 허학봉 선생을 ^{선생}선생이
 청진 감옥 들을 열자 감옥에서 나온 후의 5한 혁명가 ^씨말이나 온 김에 러 보려려
 한라 청진시원들이 한 거리를 허학봉 거리라 ^쪽쪽은 일이 있다 김일성이 이것은
 알고 분이 ^말상항까지 올라 함북사람들을 혼낸 일이 있다 "상상검토" 랑서이
 선생도 숙청당했다.

허국봉 선생이 내가 따르샤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은 장사책에서

리용상이 그런 일이 있었지 아주 오랜일이요 그것을 왜 갑자기 묻소 한가 내가
상동지 추풍 증심여창이란 분이 기억 되십니까? 하니 리용상이 가만있소 그런
분이 기억되어 증심여창에 나'뿐만 아니라 리중립, 오기삼, 허승환 기타 등
들이 그 분에 가있으면서 독립운동은 했소. - 한라 2 때 상동지 우리집에 가
게 왔습니까 남정보란 분이 기억 되십니까? 하니 리용상이 기억 되고 말고 그
분도 우리와 같이 독립운동은 했소 - 한라. 우리가 아로 남정보의 아들임과
하니 리용상이 나와 약속 하면서 - 사 략에 살아 가자면 기이한 일도 많지
이런 좌석에서 현주이아들을 만나라 함 기쁘오 우리집이 가서 좀 자세히 이야기
하거 - 한라. 내가 - 감사함이라 - 했다 그후 리용선생은 여러번 찾아갈라
리용선생의 신체도 말이 잘라

리용선생은 1907년 4월 6일 화탄수도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
연화 회의에서 애국가를 애국열사 리준의 아들이라 일제가 원동은 칩거
했음 그리 죄놈들과 맞서 싸울 분이라 그런데 김일성이 "사상검토" 강제가
재판도 없이 리용선생을 숙형했다 력사도 어느 때나 살아간다 김일성이
이런 반행이 인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온 것이다

오기삼 선생도 만났라 내가 그 선생을 만나 30년 전이 선생이 증심창
우리집에 와 계셨다라 하니 너무나 뻘개 무량해서 나를 도용하고 유신
일도 알았다 오기삼 선생도 "사상검토" 강제가 떨어져 나갔었다

한1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련 대사관 제1차 참사 필라도브가
누를 노리라 한라 그 때서 찾아가니 필라도브가 나보고 - 동무가 왜 저
까지 국적을 바꾸지 않고 있소 - 한라 내가 - 국적을 바꾸는 문제가
아주 심중한 문제야 좀 생각해 보겠습니까 - 하니 필라도브가
- 생각해 볼 것 있소, 동무가 늘은로 인하자면 공민증은 바꾸어야 하오.
한라 내가 - 나는 소련 공민증은 다른 나라 공민증과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 하니 제정으로부터 위수상 남일이로 나라 공민증을 바꿀리 고한
라 다른 관원이 있다 물론 북조선 정씨가 만화하인 민족화권론자였다면
누도 공민증을 바꾸어가지고 북한 사회 건설에 힘을 보칠 수 드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김일성이 소련 공민증을 북한 공민증으로 바꾸게 하
소련서 온 간부들을 조조로 청산하자 하는 것이 10년 전의 최막은쓰고 왜리
죽로 들어갈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사람들은 자기의 머슴이 바가피서
공민증을 교환한다. 이것은 앞을 세치로 죽 나라 보는 머리집은 일이다
보라, 공민증은 아를 사감은이 제국에서 안하러 있는가!

이상에서 말하러 가 보려든 "사상점흔"을 마무리하려 할 때
 내게 대한 "사상점흔"가 형식적으로도 끝난 것 같고 그러나 사실은 "사상
 점흔"가 안남리에서 진행 될까 나의 일거일동을 뒤이겨 면발리 살핀다
 적원들과 교제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내가 "사상점흔"을 알았거든 소련서
 목 사관이라든 그래서 나를 무시해서 손을 떠란다 그럴까 친하게 일하러
 부장들까지도 나와 만나고 싶은 심가 한다 이것은 내가 "사상점흔"을 말하러
 그때 불렀던 목사 무시하라 이런 물고기 속끼이 과연 연을 계속 할 수 있겠
 든가! 그리고 또 내가 "사상점흔"의 신세를 후후리 입었다 신정외약인지,
 무엇인지 하는 1명이 걸고 속내음과 수잔증이 심해서 도저히 일할 수 없을까
 정우 1명만이서 체력을 알았든 너무런 결과로 있었다

1958년 5월 초에, 내가 영이 나서 일을 떠날 수 없으니 나를 소련으로
 보내 라라 내각 사무국이 청원을 냈다 한 번은 중앙까지 1악 근원이
 나를 부르다 1악 근원이 나 보고 - 왜 소련으로 가라 하라 가라고 누가
 일러주노, 무슨고마에 체류하려 보내 주겠소 - 한다 나는 사실 소련에
 화 체류를 말도 안된다고 한다 나는 후후아르거니와 일할 환경이 못 돼서
 소련에 갈 것은 결심했다 5월 초에 나의 청원이 접수 됐다 사실 나는
 기뻐라 그러나 차이를 봤다 남들은 소련이 돌아올 때 가만 쉬여 개적
 가져라 왔라 하지만 내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내가 소련으로 갈 때는 손들은
 들고 나와 아주 찬한 천구 깃광이 나를 찾아 왔고 그때 깃광이 무역성
 부상이었다 깃광이 나 보고 - 야 침만 갈테냐, 일하러 왔다가
 이리저리 중도에 간란 말어냐, 끝을 붙어야 ~~한~~ 하지 - 한다 그래서 내가
 - 이제 붙어 내가 과연 할 수 한지도 못 보는 앓은 한사한이 구나 우리구위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있는 것을 내가 못 보는냐, 불장은 가 봤라 살고
 싶으면 물라 깃광을 싸라 - 하니 깃광이 - 좀 완화해 지겠지 - 한다
 내가 - 천한 천구의 흥고 를 든어 다 안들은면 후회할 때가 있을 거라 -
 했다. 서로 갈라진 이후 깃광의 소식을 알아 붙려라 했으나 알지 못
 려고 말았다 천하는 말에 의라면 형이상물런이 태라 한다

어느 날 저녁에 최철환이 전화를 건다 그때 최철환이 내각
 사무국장이었다 그의 집은 해안산 밑에 있었다 우리 집에서 멀리
 앓라 내가 최철환을 찾아갔자 최철환이 혼자였다. ~~철환이~~
~~처와 아들을 소련으로 가려 보았어.~~

내가 - 나는 가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서 좋겠소 - 하니

하나 최철환이 - 나는 말씨 죽은 사람이오 짐난것 없소. 불식이 잘 생각 해보소
여기를 떠나야 하오. 한 잔씩 씹던 씨이 이야기 하기도 한다 - 그날 저녁이
최철환이 죽로 김창만이 대해 이야기를 했는디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다음과
같다

“ 김창만은 프락크도한 큰 아침쟁이다 볼내 김창만을 함복에서 안터진 리서죽어
아들이라 김일성이 사망지산 운동할 때 2에게 자문을 하여 죽었다 한다
이래죽다가 김일성에게 돈을 씹기것은 혁명성이나 애국심이 있어 그런것이 아니라
매달찌산들이 지주들을 습격 하는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처녀 김창만
은 제아이 락락으로 불은 머슴이 등등 일수있었다 호지개혁 때 각를 지주들은
라 청산 됐는디 김창만 아이는 청산은커녕 도치려 러질 살게 됐고 아들의
후세를 번고 등만 들을 까보고 혐박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겁나서 한바리까를
말소 못 했다 김창만이 중앙 광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최철환은 사람들이 김일성
게 고자 직을 했다 김창만은 우리 소련서온 간부들을 ^{외국에서} 살려해라 마르레로
말하면 김창만 중앙 광에 갔아서 광사장이 골동한 것 보란 간부들을 잡는디
러를 붙였다 우리 등지들의 피가 김창만의 손에서 흐르고 있다 김창만의
죄는 아주 엄중 할라 원벌의 실패를 받을 날이 ~~앞~~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

최철환이 말을 라 하니 나서 나보고 불식이 간대 하니 이런 말은 화도 이놈의
세상이 어찌한 판이지 제 등등들과도 속이 있는 말은 못하게 해일소. - 하여서
한숨을 내쉬다. 그러나 기쁜 몇일 전에 최철환을 만나 흥미를 인사를
했다. 그때 최철환이 “사상검로” 땅이 걸려 못 싸질 줄 비루 알고 자기
처와 아들을 소련으로 보냈다.

김창만이 말이나 문김이나도 한가지 못해진다. 김창만 ^의 실패 무장으로
있을 때 일이라 김창만이 나와 아무 말도 없이 1만송 황황한은 ^{국립} ~~국립~~ 무장에
넘겨 죽었다 내가 사실 이것을 논르고 있었는디 프락크 장이 내 ^의 땅이
들어와서 - 중앙 광 실패 무장이 우리 함창만은 ^{국립} ~~국립~~ 무장에 넘겨 죽었습다
한다 그래서 내가 - 그럴 수 있겠소. 내일 실패 무장을 찾아 가겠소 - 했다
이틀날 실패 무장 실로 갔다. 김창만의 미서가 무장실에 들어가 양송이원
회위원장이 왔다고 보고 했다 - 김창만은 고의적으로 나를 미서실에서 ~~간첩~~
기라리게 했다 나를 들어 오라 한다 내가 들어 갔는디 나와 인사도 안하
았은 자는 말도 없이 푸엇을 쓰고 있다 나를 붙는척 하는 척한다 재판이든
가지런 김창만 ^의 ~~의~~ 고통을 ^내 ~~내~~ 목시고 살았다 한참있다가 무장동지 왔어도
종 것습다 하나 앓으러 한다

사건이 없소

김창만 나보고 - 무슨 일이 왔소 어서 말하오 - 한라 그래서 내가 란도적임
 켜적임적으로 - 부장 동지, 저와 아무힘의 없이 망동함창만을 죽림죽정에 먼저
 죽였습시다. 이렇게 하고서야 사람이 의심이 없어서 마지 못할 수 있겠습시다.
 부장 동지의 지시를 취소해 주십시오 - 하니 김창만이 - 나도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소 - 한라 내가 - 예 알았습시다 아나하무사람들이 잘 모르고 한 말 같습시다
 하고 부장실에서 나왔다. 그후 망동함창만이 저 자리에서 일하게 됐다
 김창만은 큰 관료주의라다 웃사람에게는 아무하고 하무사람을 멸시한다
 그대 내가 속으로 "저런 관료주의라가 어러럴 중앙당에서 멸할수있겠는가"
 하긴 당간부들이나 관료라.

내가 떠나기 전 이틀 전에 최종학이 한한테 전화를 건라 1에라를 데리고
 제혁이 자기 집으로 모래 한라, 최종학은 내가 어려서 무리하는 권구라 소학교
 에서 같이 공부했다 최종학은 싸움이 무릅고 동지적애가 깊고 겸손하고
 말이 무겁고 책임성이 강한 사람이라 소일전쟁의 첫 날 무려 3천대 1의 격에
 참가한 한 사람이다.

제혁이 1에라와 같이 최종학의 집을 갔다. 집에는 두 무부며 딸이고 아이들은
 어디론가 간 모양이다. 조용하다. 내가 종학을 보고 - 우리와서 좋겠네, 반성이
 없겠네 - 하니 종학이 - 걱정할 것 없라 이제 나누는 사람이라, 짐볼
 것 없라 - 한라. 내가 - 그래도 너는 여기서 일할 사람 아니, 죽이려 해야
 하지, 내^가 집으로 들어올 때 내 뒤를 살피는가 해서 살려봤다. 살피는
 눈이 없러라 - 했라 종학이 - 하긴 우리 집을 살피라. 나는 그것을 알고있다.
 불안스럽다. 사람이 이런 북바전 속에서 어찌 오래 살수 있겠네. 이갈리죽어엿
 하지 한라 - 그래서 내가 종학을 데안 하면서 살아야 한라 마르잠힐
 날이 올 것이다.

종학이 나보고 - 그때 어느날 떠나느냐? - 해물는다. 그래서 내가 - 모레
 떠나고 - 했라 그날 저녁에 종학이 "사상 검출" 같은 신문이야기를 한라
 종학이 자기 이야기를 이런 말로 시작한다. 너도 이미 알고 있을게라 만 말만
 한가지 만 말하길라. "사상 검출"의 첫 날이다 중앙당 회의실에서 군관
 회의가 열렸라 비회의에 약 300명 군관이 참가했다 즉석판이든
 김일성, 최용건, 김창만 기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회의는 장이,
 나보고 사념분과를 하라라 한라 나는 이를 잘 알고 분과를 준비했다
 내가 연관 말이 내가 보고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최용건이 한군관을
 불러 명령한다 저놈 (나를 돕이게 한라) 의 견장을 데라라

그러자 대외 할 사람이 일의 권력을 내게서 사정없이 전장은 활각
 잡아 쥘라 최용진이 옥력으로 상을 처연서로 제복을 강장 (것)이라 명명
 할라 내가 제복은 없고 장승 처럼 만리내서 있었다 이것이야 말로 살상
 의외라 이럴까 까지 옥지 딱지 관 행동은 안행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했라 김 일평은 이 장면을 본연서 아주 만족한 듯이 허허히 웃는다 최용진이
 노모로 주석관에서서 관상 물러가라고 호명한다

나는 인편을 총침치국장이자 대장이자 최고 인민살임위원회가 이 대장의
 군사 칭호를 정령으로 수여했다 그러므로 최고살임위원회 지어는 다들 이러한
 사람도 나의 군사 칭호를 막할할 권리가 없다 그렇기에 불우하여 최용진은
 정령을 짓잡고 제마음대로 나의 군사 칭호를 관관히이서 '막할'보라
 이런 무엄한지가 또 어디있겠는가 천안공로할일이다 이 자를 지는 일이
 없다 자기이기에 거슬리는 사람은 따지 잠 죽 할라 이런 사영 지를어 오래
 가지 못 할것이다 정령은 어느 때나 승차하는 법이다 내가 죽음을 불렀라
 너무나 원통하여 격문해서 너와하는 말이라 여기에는 현이 들고 말한
 사람이 없다 나를 제살 ~~죽~~ 구한 만과인라

제복이 죽을라 총학이와 포음하고 한참 들었라 하직인사든 하리 힘이
 됐다 든은나기 최동학이 이런조특라 현대를 말고 10명이 질터세상을
 러났까지 할라

5월 21일에 내가 간다고 방송위원회에서 송연연을 처절라 송연연이
 중앙광선전내장 리 일평이 함석일라 리 일평이 전설 인지는 알수 없으나
 내게 맡는 찬수를 언짢다 나로 간관한라 사를 보라 모든 이 연회회이서
 이런 생을 할라 "수상집호"에서 나를 1만명으로 불러가 내가 간라
 하나 송연연은 하리라나 런 죽는 희극은 꾸미지나 안는가 해서 조마
 조마했다"

1958년 6월 1일에 내가 석소를 데리고 평양역에 나왔라 나를 전송하는
 사람은 면로 없었라 면 10명에서 안전원들이 누가 나를 전송하는가 살타고
 있었라 이런 판에 누가 나를 전송할수 있겠는가 내가 한 기차가 서평양
 역에 와 있었라 나의 목장들이 나를 가져우려 하였다 내 손을 잡고 가는
 사람도 있었라 직원 몇 명이 걸을로 못 가고 면 10명에서 손만내 흔들라
 기차가 현소리 러난라 아래쪽의 나왔라 사람들이 기차가 살아질 때
 까지 손을잡을 버를라

“평양이여 잘있거라, 한때 해방자의 만세를 불어 외치던 때가 왜 오늘은 이렇게 우울하리냐” 누르르 때 달구는 차창을 내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잠겼다 어느새 차가 신의주역이와 랑안라 씨관이시승객들의 집을 걸려한다 내 차였다. 한 씨관이 나를 보고 - 워런랑 동지 아십니까? 왜 아지가십니까 - 한다 내가 - 목에 명이나서 가오 - 했다. 한 씨관이 나 보고 선생님의 집이 이것입니까. 그저 흥과 하심시요 - 한다 - 내가 그 씨관을 보고 - 감사하오 - 하고 즐만한 선물이없고 해서 향수한 1명으 그 씨관에게 주니 감사히 갈는다 씨관사람들이 단편안이가리르 인사한다 차가 랑안라 철교를 천천히 넘어 중국 랑안에 들어선다 내 한 걸화가 땀주의 쓰쓰한 황야를 갈다가 드리여 치라에라 ~~활~~활라 소련 랑안이라 시름이 확 놓인다. 몇일후이 랑안가 모스크와에 들어선다.

김이노 켄찌 리하이노이츠, 조동주, 우샤도브(모스크와 외곽에 광종국 주필)이라 동무들이 나를 맞이한다 김이. 리. 가 누라를 자기 집으로 안내한다. 이노 켄찌는 ~~추풍~~ ~~이~~ ~~가~~ ~~서~~ ~~서~~ ~~로~~ ~~친~~ ~~라~~ ~~게~~ ~~산~~ ~~수~~ ~~관~~ ~~이~~ ~~다~~ 이림에서 거이 할말이나 살았다.

모스크와에 못지 상을받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동양부부장 잠시나 나를 만나자고 한다. 약속한 시간이 중앙 ~~위원회~~ ^랑에 가니 1일 쯤 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나를 부장실로 안내한다 부장실에 들어서니 잠시나 부장이 일어서서 나와 악수한다 가리니 앉으라고 한다 잠시나 나하고 - 건강이 어쩔소? 하고 물으니 내가 - 건강이 그럭저럭 못함이라 알습나 - 한다 식물이 많소 하나 - 바가 ^전여섯 십이다. - 머리로 가겠소? 나는 원동에서 가란 사람임이라, 히아 롱스크에 보내주 십시오. - 했다 잠시나 이편저편을 수침이 적는다. 잠시나 내게 물은 까지 밖 순제를 그려로 ~~말~~하 겠다 잠시나 나보고 - 동무는 김일성이 어떤 인물이라니 모르 - 한다 그러니 내가, 중앙 랑 동양 부장이 김일성이 누를지 몰라서 나와 물은수 없다 이것은 나의 속셈은 그러보려는 수작이라 좀 불쾌했다. 그러나 저러나 중앙 랑 부장과 시미를 갠 할 소는 없다 그래서 내가 열 생각 없이 라자고 자로 - 김일성은 황포 한 득재자임이라 - 라나. 잠시나 눈이 뜨고 래서 - 동무 그제 무슨 소리요 - 한다. 내가 - 부장 동지 나보고 나의 견해를 말하 라고 하니 내 견해를 말 했는 데 그리 놀랄 것 없습나 - 라나 잠시나 - 말을 좀 무위 하시오 - 한다 랑화가 끝났라 잠시나 조이 락 락을 썩 하여 내게 주련서 이 락 락은 가자고 중앙 랑 1명 원에 가서 치로 하라 한다 그리고 4000 루블 ~~이~~ ~~것~~ ~~은~~

주변에서 만일 적십자회가 가서 보조금을 ^{받은} 말하면 ~~한라~~ 나는 무장을 인수
 하라 나오라 하느니라 무장이 한새를 물러 이동무를 물려 임구까지
 안배하라 하라.

저녁이 이노까지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중앙랑이 가서 캄화한 비명을
 물어 분라 며 내가 김일성을 ^{힘들} 휘돌한 등재자라 무랑에게 ^말 할라
 하니 이노까지가 잠시나 ^{무어}라 함라 나까 하라 내가 무어라 할라
 있소, 그제 ^말을 좀 조심하라 하라. 이노까지. 이전에 그런 ^말을 했라가
 출랑이고 재한도 ^말을 수 있습나 하라.

잠시나 불평을 ^끝라꼬브라 이 이름은 가지라 서울에 있는 황제 러시아 령
 관을 지키다가 감침으로 불려 ^사어서 ^죽었다. 평양에 와 얼마안다가
 모스크바에 와서 불평을 ^감추고 잠시나 라는 이름으로 중앙랑에서 일하
 람시나에 대한 북조선에서 돌아온 우리동무들의 평판이 아주 나빠
 이런 때쯤적인 신뢰가 안다 농업성 무상 리용식이 모스크바에 왔을
 때 잠시나를 만나, 나는 다시 북조선으로 못 가겠 라니 하니 잠시나 리용식은
 실복시켜 북조선으로 도로보낸 일이 일라 리용식의 처 안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잠시나를 찾아갔다. 안나가 잠시나를 보고 - 랑신이 나더 ^남편을
 북조선으로 보냈으니 도로불러 오시오 ^그에게는 아이들이 있소 - 하니 잠시나
 경솔하게 - 이 랑원이 중앙랑에 와서 아끼 무슨 아지오 - 하라 그러
 안나가 너무나 적을 때여서 잠시나를 보고 - 이 랑원은 중앙랑에 와서
 자기 이로를 ^받할 수 없는가, 중앙랑은 백성을 ^들보아 안 죽는가 - 하
 람시나에게 ^대답하라 ^그때 잠시나 혼살 날라. 말없는 말이 천리를 간라
 이소문이 ^자자하게 ^떠졌다. 몇몇 동무들이, 잠시나 중앙랑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라고 중앙랑 간부들이 ^편리를 ^쓴 일이 일라 ^그래서인지
 중앙랑에서 나와 ^우고슬라이아 ^대사르가 ^있었다

모스크바에 와 있는 동안 ^내 혼자 "극성 조합"이 갔라 왔다. 이 조합이
 여러나모, 이상 ^누우름이 있고 녀름생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 "극성 조합"
 위원장 이중영을 김영화가 ^나타오 ^편천주라. 재외거우에 ^있은 ^때
 김영화가 ^공청 ^의 ^위 ^원 ^장 ^이 ^고 ^나는 ^소 ^녀 ^란 ^원 ^이 ^일 ^라. 내가 이 조합을
 찾아가니 나와 같이 일하던 동무들이 매우 기뻐하라 와서 일을 같이
 하라 하라 김영화가 ^나 ^를 ^보고 - ^불 ^식 ^이 ^이 ^런 ^다 ^른 ^생 ^각 ^을 ^받고 ^식 ^후 ^는 ^은
 레리고 오오, 러는 ^불 ^라 ^도 ^한 ^해 ^등 ^안 ^은 ^쉬 ^면 ^서 ^이 ^런 ^도 ^치 ^를 ^할 ^수 ^있 ^소
 정양소도 보내질 수 ^하라 내가 영화 ^를 ^보고 - 나는 ^이 ^런 ^의 ^과 ^전 ^증 ^을

말았소 의사들이 나를 더운지대로 가지 말라니 쿠퍼 암만 오고 싶어도 사정이
허락치 않소. "극성 켈호르"이 가왔을 때 어머니 표와 이상우우 수다더르를
찾아가서 뜻뜻이 술한자식 무어 좋환라 어머니의 뜻알에서 삼재 달반을 다
점으실 어머니의 일생을 회상하되라.

얼제 해 동안에 심년이던 감산이 연한다고 켈호르의 편모아 몹시 보
렸라 전에 있던 러관, 레스노라, 전화국, 전화국, 1영원, 막불관, 현대적
기제 수리소가 열려있라, 이 조합에서 30명이 갈라는 로릭 영웅들이
일타인 일라 러객 10이스트가 켈호르와 켈호르를 왕 리하인 일타인 켈호르
공화국에서 이름난 켈호르라 외국 손님들이 이 조합으로 귀국 찾아온다

내가 "극성 켈호르"이 가 있는 동안 김 1영화 사행을 자주 방문하되라.
내가 한 번을, 김 1영화의 짐이 가서 점심은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하되라.
다른 켈호르 회장들은 아주 어질이사는데 왜 이렇게 구차이 사오
하니 1영화가 내가 왜 구차이 산란 말이오 먹고 싶은 것이 있소, 잘 사는 켈호르
회장들이라 도둑놈들이오. 켈호르 회장도 열근은 말고 사오 2월금을
말아 가지라 거야 어찌 그런 호화품을 생활할 수 있소.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오 한다.

켈호르 집행부 위원들과 나의 동무들이 저녁을 채렸라 저녁 식사에 한
30명이랑 노렸는데 식사가 참말 만만진수다. 김 1영화가 저녁을
먹으면서 나와 이런 말을 한다. 봉식이, 이 저녁을 차리는데 켈호르
들은 한 푼도 안 들었소 동무들이 도와 차린 것이오. 양도 다른 켈호르에 가
사왔소 그러다가 켈호르들이 켈호르 양이라고 할가봐, 그러나 피려워
하지 말고 말이 자시오 한다 나도 간란한 감사를 하되라 일이야 말로
나를 위해 저녁을 차려서 반감소. 이 불감도 ~~이런~~ 동무들이 옛정
만 잊은 것이 더욱 반감소. ~~이런~~ 이런에와 보니 켈호르 말은 말전
했소. 이것은 이 좌석이 앉은 1영화를 비롯 한 여러 동무들의 지혜와 정력과
켈호르 언젠가 피와 땀으로 이뤄워진 것이라 ~~말~~오. 늘상 건강할 뉘으로
말하러 ~~말~~ 하시오. 켈호르 전생에서 많은 상라를 전무시오

내가 켈호르 러나는 날 저녁에 1영화와 다른 많은 동무들이 여행
까지 나를 전송하되라. 모스크마에 와서. 헤아름스크 해외 1영웅국에
가 일하라는 중앙관 소개서를 가지라 8월 15일이 모스크마를 러나
러카름스크에 왔다 이래 헤아름스크 해외 1영웅국에서 나의 친구
들 상함이 일하되라. 물시에 다른 러구 갈리 없고 해서 열 상함 짐에서

살았다. 불쌍한 사람의 짐이 너무 무겁고 식물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땅속국회대실의 한 구석을 찾아서 살았다. 일찍이 가을이라 해서
 식물들이 심한 고생을 했다. 내가 하아름스크로 볼 때 잠시씩 죽어가는
 나에겐 그랬다. 걱정 말고 가라든 것이 한 달이 돼도 아무 낫았다. 그래서
 잠시씩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씩이,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떤 강강에서
 에게 지시를 주었는지를 한다. 어떤 강강화가 있는데 이후 사흘만에 어떤 강강에서
 흐르다가 나를 모래로 한다. 익숙한 시간에 흐르기를 만난다. 흐르다가
 - 내가 동쪽의 죽어가는 문제를 시뮬레이션해결하려고 시도해보는 위원장 뱌르가 예브
 에 ~~서~~게 말했으니 거기가 보았는가. 그래서 뱌르가 예브를 찾아가서
 나를 시도해보는 위원장 꼬르수노브를 만나러 한다. 나는 그때 알은
 사람이 없다. 관료주의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끝이 나타나리라 자라듯 봄이
 이간대라 할 수 없는 열이다. 시도해보는 위원장의 지시대로 위원장 꼬르수노브를
 찾아갔다. 많은 온갖들이 차례로 서냈다. 나는 모르척 하는 차티 없이 꼬르수노브
 카이네트로 들어갔다. 꼬르수노브라는 사람은, 일론 보아도 생김새가 관료주의
 자라. 나를 보는 척 하고 척 한다. 언사도 없고 앞으라는 말도 안 한다. 꼬르수노브가
 나보고 꼬리도 끌고 없이 - 일론 러우 흐루안 가고 때 하아름스크로 왔소 - 하고
 하니 끄끼 말 한다. 아까 이사람이 ^{나를} 어리서 줄러 온 이주인으로 알고 있는 모양
 이다. 내가 - 하아름스크로 가라라 하니 왔소 - 하고 불쾌하게 대답했다
 꼬르수노브가 - 지금 하아름스크가 죽어가는 것을 접고 있소. - 한다. 그래서
 내가 - 좋소. 내가 불쾌했던 곳으로 가겠소. 어시에 죽어가는 것을
~~내가~~ ~~이제~~ 죽오 - 했다. 나는 속으로 "내가 상부의 지시를 받은 줄 나는 안다
 안배 관료주의를 무력으로 결국 내게 죽어가는 죽어가는 것이"라
 내가 할 참이었다가 - 왜 글을 못 쓰겠소. 감성이 큰 관료의 자오. 나는
 이주인이 아니오 중앙 강 강으로 에시로 왔소" 하고 일어나서 나 불려라 하니
 꼬르수노브가 - 좀 왔으시오. 그렇게 생각 번질 것 없소. 내가 립시로 짐을
 열것이니 가겠소 한다. 내가 에시로 볼 때 모스크바 동쪽들이 봉식이
 하아름스크로 가지 런 립시로 죽어가는 죽어가는 것이 들리라고 말이 립시지 들면 그 말대로
 하 런 말이 생각 된다. 그래서 내가 꼬르수노브를 보고 나는 립시
 죽어가는 것 같 생각이 없소 하니 꼬르수노브가 그러하면 좀 기다리시오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후 볼 때만이 시 죽어가는 관료의 죽어가는 나를 모래
 한다. 그가 나보고 - 새 죽어가는 것, 좀 머오 - 한다. 내가 - 그것은
 관계 없소 죽어가는 것이 내게 들리면 가겠소 - 하니 죽어가는 - 그러면

지금가 보게요 - 한라 와서보니 새로 전설한 주책이라 마음에 들었라
 인차 이사 했라 이사한 행이나 가구가 전혀 없었라 돈이 없어서 깎가구름
 살 형편이 ^{못됐다} 이러다. 그래서 '양송죽' 책임자 받고 내사정은 말하니 권사로
 가구를 빌려준다 어제는 짐도 있고 가구도 있고 하니 생활문제가 해결된
 셈이라 식구들을 벽에 살려야 하겠으나 가 일은 해야 했다 그런데 몸이
 그냥 아프라 신장외약 때문이 몸과 손이 떨리고 허블연증이 심하고 기억
 력이 없다 식기도 없었라 2 때 나는 아내 내가 죽는다 했다. 할 수 없이
 의사 찾아 갔다. 의사가 나를 오래 진단하더니 - 당신께 큰 1명은
 없소. 영양부족이요. 2 때부터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오고, 영양가치를 들이
 어야 하오. 당분간 정신로동을 하지 마오. 만 1명 흉취 약은 없소 1명이오. 건강이
 강신 자선에 갈려오 하년서 전신 링수마찰을 하라든 것이다. 의사가
 지시한 약을 마시는 한편 링수마찰을 시작 했라. 하루 10마진 없이 아침
 일찍이 링수마찰을 한달 동안 계속 했라 2 때 러니 효과가 있라 우선
 손이 떨 려고 식기가 돌아서고 기억력도 나사 된다. 링수마찰을 계속 했라
 하긴 지금까지도 하루 링수 마찰을 한라 건강이 점차적으로 회복 됐라
 한직원이 나보고 - 우리는 2 때 신생의 생명명이 위협하 라고 겁이
 없습니가 - 한라. 이것은 사실이다. 사상검토의 "적극"을 혹독이
 없었라 죽다가 살아났다. 낙심 말고 1명과 꾸준히 싸우라던 1명을
 되겨 낼 수 있라 라는것은 나는 알고 있다.

후 카를스크 양송죽에서 거이 열라섯 해나 알했라 이 동안이 고정화,
 주필로 있으면서 직원들과 친하게 지냈라. 라 그런것은 아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다. 몇 가지 실패를 겪었라 조선 1만에서 장길성
 이라는 1천여원이 알했라 푸름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 언역을 하라가도
 자기 언역술이 ^{알라 막은안하고} ~~야 하라~~ ~~는~~ ~~것~~ ~~은~~ ~~안~~ ~~생~~ ~~각~~ ~~하~~고 개색기(필자를 불함) 라는 원고를
 활자 찍어서 수지홍에 찍어 런질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만수장'들이
 이것을 보면서도 말하느 사안이 없다 하 라는 장길성이 언역을 하라가
 람 개색기하인 원고를 찍 찍어서 수지홍이 쓰여 냐는라 내가 참지 못해서
 장길성을 보고 - 이것이 첫 1번이라던 몰라도 100번이 원고를 찍어 버리면서
 필자를 개색기나 누여나 하고 욕질 하오 고지 여리서 매운 행사오, 강신은
 이상도 모르오 - 하니 장길성이 한참 말없이 있다가 - 내 잘 못 했습니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가 - 한라 이런 일이 있자 냐는 후에
 들 상흥 (우리는 서로 신생이라 믿었다) 이 나보고 - 신생이 일든가지

시작 했는데 좀 참으시지 않고 번역원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말하십니까 -
 한라. 나는 늘 상흔이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 그래서 내가
 - 늘 선생,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그대 강 길성이 두리틀기서 1번이 원고
 지은 쪽이 팽개치면서 필자를 무라노 것이 옳다는 말씀이니까, 선생이
 사람들을 물리쳐서 잘 못 굶혔습니까. 나는 알지도 그런 사람들과 싸우겠
 습니까 - 하니 늘 상흔이 - 그 사람들이 저술자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섯
 1명송이 잘못 나갈까 아십니까 - 한라 내가 - 그럴까 해서 끝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까 - 했다. 이후 강 길성이 무슨 행사를 1번이 24시간
 내로 복조원으로 쫓겨갔다.

내가 양승국에서 일할 때 "원동에서의 소메트 주권 수립은 어한 고려
 국제 주권자들의 투쟁"의 필자인 김 마르웨이 씨로부터 예이츠가 취재자로
 와서 우리집에 대한 주권 일었다. 나는 이 선생과 안면이 없다 모스크바 등등이
 마르웨이 선생이 이사로 온 때 나를 만나라고 그 선생에게 권고했다.
 마르웨이는 쓰러질 때 때 브라지 보스토크 광학고 고장으로 있다가
 잠깐가서 김우 생활은 영문대 이상이나 관문이다.

마르웨이가 나를 보고 김승민 선생은 만나자라 한라 그래서 내가 영어는
 잘 선생을 모셔 김승민 선생 책을 찾아갔다 승민 선생이 마르웨이 선생은
 '안감지 뱀아'라 등문간이 안면은 없고 소말때 듣고 아는 모양이다
 김승민 선생이 마르웨이 선생이 오실까 걱심을 치였다. 승민 선생이
 손님을 데려 술잔을 든라 마르웨이 나눈술을 못 마시르하하하 저질한라
 그래서 승민 선생이 환자인이 못 들겠소. 마르웨이가 사양하라.
 승민 선생의 얼굴을 살피니 무척하다. 점심은 끝내화 두달이 서로 행사를
 말한라 그런데 여권이 남아해서 서로 목신각신한라 승민 선생이 마르웨이
 보고 - 강산 끝속이 아직 까지도 강와 싸우고 절이 남아있소 - 한라 내가 보아
 하니 두달이 서로 말고 말 것 같아 그래서 마르웨이 선생을 보고 - 선생이
 승민 선생을 꼭 만나시자라 하길래 선생은 듣고 왔는데 서로 목신각신하
 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하실려 그런 바만 리 자리를 앉십라 - 하니 승민 선생이
 - 마르웨이는 내 손님인데 내가 그래서야 되겠소. 그 배움이라 - 한라
 마르웨이를 데리고 승민 선생 책을 보았다. 내가 1월 2주 때 읽을 것은
 없고 해서 점심이 죽수를 만들었더니 마르웨이가 나눈 취미는 재물이
 죽수를 못 먹소. 마르웨이 차를 주도한다. 이시에 김우천 거리가 있라는 말을
 이 선생이 알고 오셨다. 선생님, 이름이 잘 못 해서 김우천 거리라 습니까
 분내, 김우정 습니까 중심항 습니까 저분라 이상 습니까 김우정 이

청년 때 글쓰고 받고 받은 하고 관이런 일이 지금도 환상 나리니 그 선생이
 그 저러이 이름을 아름잡아와 하지하고 ^부를 ^보시메르로 같이 가자고 나를
 조르라 시보메르이 가서 고문서를 들춰어 보니 함말 김우현이 아니라
 김우경으로 돼 있자 그제서 우리 시보메르이원 장은 반나 이사신을 ^받하
 저러이 이름을 고치자라 하니 위원장의 말이 저러이 이름을 고치자라 말도
 돈이 드는데 그런 필모가 있겠는가 그리고 시보메르이 김우현 저러라 부르고
 있는데 그 반 두재 한라. 그래서 지금까지 김우현 저러라 부르곤 할라.
 함초 막물관이고 그 선생과 같이 갔라 왔라 그 선생이 그 때 막물관을
 돌아보고 막물관 관장은 보고 - 우리 저러사람들이 백여년 이상 원동에
 와 사는데 왜 저러사람 구석이 없소 - 하니 관장이 - 앞으로 저러
 사람 구석을 만들 계획이 있습나 - 한라 그러나 지금까지 함초 막물관에
 저러사람 구석이 없라. 마르케이 선생이 보시고 이런 말도 한라 리준남의
 말에 의하면 광신부원이 흑풍이 ^사말편 사업은 했라고 하는데
 무천에게 대한 글을 쓰고. 내가, 내가 쓴 책을 재판 하겠소 그 때 광신
 부원에게 대한 기사를 보겠소 한라. 내가 ^가마어지 ^간말리산이
 관이신 기사를 사진과 함께 보냈으나 마르케이 선생이 사방한
 기이 그의 책이 재판 못 됐라. 내가 김바르에 저러 데이이든 선생과
 재조 토론이런 말을 했라. 나로 저러편리를 보판하리 일라.

세월은 쉬지 않고 흐른라 ^말의 년근 생활로 나갈 때가 돌아왔라
 리준은 관목과에서 년근수속을 라해 주지만 그 때는 자신이 년근수속을
 한라 년근수속이란 저러쉬원인이 아니라 ^심증나지 말든 할차를 ^안아야
 한라. 내가 년근수속하자고 중구역 사회보장 무관 ^부를 찾아가
 무관실로 들어가니 ^부장관과 ^부관을 알가습니 말이 ^관한 ^부관이 ^안아원라.
 내 - 그 새 ^부장이 내가 가져간 자서전을 내놓았다. 무관이 내 자서전을
 주십스레 ^부는라. 그러다가 ~~내 자서전을 읽어볼까~~ - 동구의 자서전을
 자세히 읽어 보았는데 구역 사회보장실 ^부에서 해 ^부관하기 힘든 ^부제들이
 있소. 동구가 중앙 ^부이서국이 이 자서전을 볼때 동구는 ^부관 년근이 아니라
 설 ^부관 ^부관 년근을 받은 ^부관 한라. 그래서 내가 짐이 돌아와 나의
 자서전이 ^부관을 ^부관해서 ^부관공산량 중앙이원 회 ^부이서국으로 보냈라
 한 ^부관이 지나도 아무 소식 ^부없라 그러다가 한 ^부관이 ^부관 지나서 10년 ^부관
 조직 ^부관 스민 ^부관이 나를 자기 사무실로 ^부관 한라 ^부관 시간이 ^부관
 그를 찾아 갔라 무관이 읽어서 나를 ^부관하게 인사하리 나를 ^부관 하리
 한라 무관이 - 동구가 년근 ^부관 ^부관 중앙 ^부이서국이 ^부관을 ^부관

있습^까나 - 한다 그대서 때가 - 예, 그런일이 있습나 - 하나 부장이 -
 내가 회장을 맡았습나, 돈짜가 소련개10년 년금생입니다. 하리 나와
 약속한다. 부장이 나보고 10년간 사회보장부에서 개10년년금을 맡으라
 한다. 내가 10년간 사회보장부 국장실에 와서 개10년년금을 맡았다. 개10년
 년금이 세가지가 있다 소련개10년년금, 공화국개10년년금, 지방개10년년금
 이다. 소련개10년년금생은 즉책로 50%, 인민이한번식 곡료 정양소
 칩로, 약품가의 20%, 도시원수수단부를 리용, 인민일회식 소련은 곡료로
 2억^{5천}만 원이 넘는 권리가 있다. 나는 해마다 스마꾸까지 정양소로 간다
 스마꾸까지는 소련에서 유명한 약수 지대다. 여기이 "중앙강 정양소",
 "직업등병 정양소", "군^대정양소" 세 정양소가 있다. 내가 처음
 스마꾸스크 정양소에 가서 보고 느낀것은 대충 이러했다. 이생에서
 말한가와 같이 여기이 세가지 정양소가 있다. "중앙강 정양소와
 "직업등병 정양소"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앙강 정양소"는
 건물은 참으로 훌륭하 라고 아름답다. 7층건물이다. 주위를 벽들로
 둘러 막고 임금이 보호막이 있다 이보호막에서 "중앙강 정양소"에서
 휴양하는 사람은 한층과 시킨다. 그 외에 다른 휴양생은 두 층에 갈
 권리가 없다. "직업등병 정양소"는 4층으로 돼 있는데 보간간
 없는 건물이다 여기에는 보호도 없고 울타리도 없다 이상출입이다. 나는
 이 두 건물을 비교 해 보면서 이런것은 두결다. 강과 인민 사이에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을수 있겠는가. 강과 인민은 일체라 뿌리
 알는가. 이것은 연행생이 아니다. 나는 양심이 깨어 된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보기 부끄럽다. 나쁜이 아니라 여기와 휴양하는 모든로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리 있다. "중앙강 정양소"에서는 강이 만들이 휴양하리, 있는 "직업
 등병 정양소"에서는 상놈들이 휴양하리 열라고는 말할라 나는 "중앙강
 정양소", "직업등병 정양소"에서도 휴양한 일이 일기이 두 정양소의
 비우 시설과 식사차이를 잘 안다. 중앙강 정양소"에 들어서면 눈이
 한번씩 떠문다 모든 단면의 시설이 알뜰하 가꾸어져 있다 어리나 극단으로 말하면
 호실에는 샤워, 전화, 히레이즌, 알락의자 등이 있다 쉬는사람들의 발에 미끄러
 이 안에서도 차면이 있라 한다. 식사^가는, 로동자들은 정양소의 식사이기
 하면 훨씬 좋다. 여기 식탁에는 각종어란, 채이, 어섯 20개가 같이 오른다.
 로동자들의 식탁에서 이런것을 볼수 없다 여기에서 300여명이 정양
 하는 데 이만한 수의 직원들이 있라 한다 정양하는 한 사람에게
 시중을 한사람씩 불러 불러 있는 씬이다. 머리로 보던지 차이대우라

같이

이렇게 하신 후에 노래 전할 수 있는지가 결국 문제가 됐다. ^이연재 북조선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배우가 더욱 흡수한 1만명으로 유지 되고 있다.

내가 스마를까 정양소에 갔을 때 어떤 41명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후방생활사관이 송진한 아끼르른 듣고 와서 "중앙광정양소" 감역이 "당과 연민이 갈라졌다" 라고 써서 ^이될 했다. 그래서 글을 지워 버리고 ^이라고 바꾸었다. 이 소문이 연해주 전역에 갇힌 터전이다. 이 일 때 ^이연해주 광미서 로마 편이 스마를까에 왔다가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중앙광정양소"로 바뀔 때 ^이출입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중앙광정양소"라고 안 하고 그저 "연해주 스마를까 정양소"로 ^이했다. 이름은 바꾸었으나 그 내용은 그대로 오래 남아 있었다.

내가 히마루스크 외국 ^이말송국에서 일할 때 나와 가까이 지낸 두 사람을 약간 소개하려 한다. 이 말송국은 조선말, 일본말, 중국말, 영어로 ^이말송국이라고 한다. 나는 조선말 등 두 ^이보통 중국 말에서 ^이역역원으로 있는 두 판과 일본 말에서 역시 ^이역역원하는 라지나와 아주 친했다.

두판은 누군가, 이 사람을 한 때 만국 부위 ^이정무에서 ^이기술이서로 일하던 사람이다. 두판은 나와 ^이만 이 사실을 말하곤 다른 등 두 ^이판과는 이별이 감후로 있었다. 그 때 때가 그런 때였다. ^이소중 관계가 나 ^이이아 ^이적은 때 중국을 ^이이판하는 "바람의 섬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제작 됐다. 이 영화의 ^이주역이 바로 두판이다. 두판이 ^이매우 ^이아니 ^이다 ^이그러나 ^이악수하곤 중국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화제작 ^이감독이 두판을 ^이주역으로 ^이호칭 했다. 이 영화를 히마루스크 영화극장에서 ^이몇 ^이년간 상연했다. 지금은 이 영화를 볼 수 없다.

두판은 ^이낚시질을 ^이무척 좋아한다. ^이누도 ^이낚시 좋아한다. 그래서 어느 때나 ^이두리서 ^이낚시질을 ^이관한다. 두판은 ^이물고기를 ^이좋아하지 ^이않는다. ^이그래도 ^이고기를 ^이먹는 ^이자 ^이미로 ^이관한다. 이 사람을 ^이작적도 ^이잘한다. ^이나 ^이70 ^이주년 ^이때 ^이두판이 ^이자 ^이침하곤 ^이와서 ^이음식을 ^이만들었다. ^이그 때 ^이나 ^이70 ^이년에 ^이관련 ^이손님들이 ^이이 ^이집에서 ^이중국 ^이로 ^이리도 ^이잘 ^이하 ^이고 ^이하 ^이길 ^이때 ^이두판은 ^이손님 ^이을 ^이앞 ^이에서 ^이소개 ^이했다.

두판은 ^이없다. ^이그러나 ^이그 ^이나 ^이그 ^이러 ^이를 ^이자 ^이해 ^이와 ^이애 ^이정은 ^이나 ^이다 ^이가 ^이습 ^이속 ^이이 ^이남 ^이아 ^이왔다. ^이라 ^이지 ^이라는 ^이이 ^이상 ^이에서 ^이말 ^이한 ^이아 ^이와 ^이같이 ^이얼 ^이분 ^이만 ^이연 ^이역 ^이원 ^이이다. ^이라 ^이지 ^이라는 ^이선 ^이일 ^이정의 ^이포 ^이로 ^이다. ^이히 ^이마 ^이루 ^이스크 ^이에서 ^이포 ^이로 ^이생 ^이활 ^이은 ^이라 ^이다 ^이가 ^이사 ^이음이 ^이저 ^이승 ^이려 ^이시 ^이비 ^이리 ^이로 ^이도 ^이망 ^이했다. ^이거 ^이기 ^이가 ^이서 ^이살 ^이곳 ^이을 ^이찾 ^이아 ^이러 ^이때 ^이라 ^이가 ^이말 ^이을 ^이연 ^이구 ^이어 ^이큰 ^이말 ^이가 ^이락 ^이이 ^이떨 ^이어 ^이졌다. ^이그 ^이때 ^이서 ^이다 ^이리 ^이를 ^이전 ^이다. ^이일본 ^이포 ^이로 ^이영 ^이이 ^이히 ^이마 ^이루 ^이스크 ^이러 ^이나 ^이라 ^이지 ^이라 ^이가 ^이히 ^이마 ^이루 ^이스크 ^이서 ^이로 ^이관 ^이한 ^이일본 ^이말 ^이부 ^이에서 ^이그 ^이를 ^이연 ^이역 ^이원 ^이으로 ^이말 ^이았다.

라지마가 차츰 차츰 1억 원이 됐다. 품창도 많이 말았다 혼자 살기 너무나
 적어서 러시아 녀성과 동거했다 러시아 녀성에게 말하니까 안
 는데 라지마가 천만 원 거둬서 사탕했다 라지마는 무척 짐이서 멀리
 함께 살았다 그래서 천만 원이 됐다 시로 만나 없다. 라지마도 년금 생활은
 나왔다 라지마가 돈도 없었다 그러나 심해서 채소질도 했다 라지마가
 나를 만난 적 마다 누르 채소 동식물 하나도 원고한다. 내가 브라고우에센스크
 에서 사는 날 아들 짐이 갖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라지마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라지마 집을 찾아가서 일원중이 라고 한다 한 달이 지나도 ~~보이지~~
 라지마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 지금도 최원 안 노양이라 한다 그런데 우연히
 일본만 나까야마 ^와 른 길에서 만났다 내가 그와 라지마의 소식을 어느 나하
 는지 보니 나까야마가, 왜 선생이 모르시오. 라지마가 100만 원이서 죽었소.
 라지마 양반이 시체를 안 찾아가서 시체 안치실에서 주임 없는 사체라고
 어디라 함장 해 버렸다고 한다. 누르 나까야마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놀랐다. 라지마 생전에 자기의 양반을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어떻게 자기
 양반이 시체도 안 찾아가는가 세상에 허한 사람도 있구나. 일본만도 일본만
 책임자가 라지마가 년금 생활도 나가 후이 그가 어떻게 사는가 하곤 알아
 볼지도 있고 100만 원에 넘은 한 줄로 알면서도 일본만 어느 한 사람도 100만 원은
 알지 못한다 이어서 독한 사람이어야 할 것 아닌가 하곤 내가 100만
 년금 생활로 누르 25년이 됐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의 건담 상태를 물어
 보는 사람이 없다 하곤 내가 조선만 사람들과 그 당시 직원을 파자구 만나
 기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일년에 몇 권씩 볼로주르 보낸라 쪽이 많이
 된 것 같다 라지마 ^{사랑이} 이렇게 미참하게 됐다. 라지마의 양반은 리 말할 것
 없거니와 외국어 방송국 총국 필의 미안간 성을 밟아야 할 것이다.

누르 3년 동안 러일하라가 1973년도에 일에서 완전히 나왔다. 사람이
 직업 없이 살자고 보니 마음이 형편 것 같다. 안절무절하는 때로 된다. 그러나
 사람이란 아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것 같다.

1983년 7월 7일 나의 처우라가 사망했다 이것은 내게 큰 타격이다. 그때
 누르 씨애 아들과 살았다 처음으로 씨애 보바와 산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누르 이 두 손자를 사랑한다 그들을 보고 산다 누르 친구들이 누르
 아직 그리 그리 애했는데 애했음을 할 사람은 이르러 한다. 그러나 친구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지금 시대는 황금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본다 내게는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사람은
 누가 거둬주든 사람이 있는 것인가, 고살아 감격형은 없다 내게는 씨애와

때이 있라 죽으면 나를 파묻어 줄 사람들이 있라 이걸 때들이 큰심할것 없라
 1984년 봄에 소풍도 할점 라스켄트로 갔다 이 도시에 나의 딸과 친구들이
 산다. 어느날 저녁에 황성복이 저녁을 같이 하자고 나를 청한다(황성복은
 대일전 호시기 부러 나와 같이 조선해안전이 참가 했고 전후 평양에서
 아주가깝게 지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찾아 갔다 짐이 들어 가니 다른
 사람은 없고 주인 혼자 뿐이다 그런데 딱 오래 있도록 저녁상이 만들어
 온다 그래서 내가 주인 보고 - 누구를 기다리오 - 하니 주인이 - 지금 리상조
 선생이 이 도시에 와 있소 그분을 기다리오 - 한다. 내가 속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저녁을 차릴것이 아니라 리상조를 위해서 저녁을 차려주나"
 하고 생각 느꼈다. 한참 있노라니 리상조가 자기 처와 같이 들어 왔다
 주인이 일어나서 리상조^와 그의 처를 아주 반갑게 인사한다. 나도 리상조
 부처를 인사하노라 다감상이 들어왔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간담이 있으면
 간담의 비유음, 당신이 더 잘 알겠소 내가 리상조 알지 이런 문으로, 전대기문의
 김일성 개인 독재, ~~언변~~ 북한인민의 생활관, 사상검론, 김일성의 '망항한
 사생활, 북한에서 더 인권의 빛과 무슬레 기하 문제를 가리고 리상조와 황성복이
 경쟁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김일성은 비늘고 미안한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다 까먹고, 아소크지 죽어인지 한것을 꾸며 내가지고 북한을 넘나들면서
 풍사 칭호를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하면서 김일성은 하나씩 같이 리 말 듣고
 있다. 왜 그렇게 갈팡 질팡하는가, 어찌 할 작정인가!, 세상 사람의 눈은
 깊다 누가 누구인지 똑똑히 살펴보고 있다.

"리상조 함이 내 녀동생이 살고 있라 어느날 녀동생도 반날점 동구들은
 대할 점 이 조합을 찾아 갔다 끝호즈 짐행무 건물앞에 다갈으니 고려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에코 등간사람들이 왔라 갔라 한다. 내가 26년 전에 이
 끝호즈에 왔라 갔다. 그 때만 해도 이바람에서 고려사람들이 웅성거리
 었고 많은 나의 친구들이 나를 '안가이' 맞이하지 않았는가! 갈'말을 목적으로
 만들 사람들이든다 어디로 가고 우리에코 등 뿐인가^가이 사람들이 이리역은
 개척 했단 말인가! 나는 개척자들의 한사람이라 2월이 때 이 무인지대를
 개'말하느라그 우리고려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었는가 를
 잘 알고 있다.

이중영웅 김일화가 "극심 끝호즈"의 어떤 장으로 읽은 때 구역강
 에서 강이서 큰 우리에코를 시키라고 김일화에게 내리 박혔라 그러나
 김일화는 내가 우리에코 말을 부르는데 어찌할지 우리에코를 강이서
 같이 일할 수 있겠는가 하곤 저절로 말했다 그러던 편이 김일화가

사망 이후 끌호르츠 위원장이 우리에코고 강의셔드 유즈에코가 지어는 무기량
 까지도 우리에코라 말하자면 "극성 끌호르츠"가 완전히 우리에코화 됐다
 판이 이렇게 되자 이 끌호르츠를 건설한 선진 일꾼들이 하나 들씩 끌호르츠를 떠났고
 고려인 호수가 거의 300여 호였는데 지금은 30호를 넘지 못한다 하긴 "극성
 끌호르츠" 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 끌호르츠들도 우리에코화 되고 말았다.
 설마 이렇게 인 될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말로 생각해 볼만한 화제
 처리다.

1939년에 (해수가 딱 5치얕다) 다스켄트 문화 건설이 시작됐다 이 문화
 건설이 고려 끌호르츠들이 흥동원 됐다 "극성 끌호르츠"도 이 건설에 참가했다
 나도 거기 가서 광도파고 문화사업도 했다 그때 많은 한 한가지 극성을
 사살을 말하건다. 이 건설장에서 고려사람들이 족제비를 잡고 늑을 낚아
 로력 능력을 우리에코를 보란 기나 붙였다 그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라수로 우리에코들이 늑채를 가지고 늑을 낚았다 늑채는 두 사람의 언어야
 한다. 두 사람이 나르 늑을 족제비를 한 사람이 쓰니까 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목을 잡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들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우리에코가 족제비를 말려 했다. 수
 많은 건설 일꾼들이 족제비를 잡고 늑을 낚아 ^{기사화}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말려 한 공훈이 크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상을 말은 만
 할 공적이다" 소가 올라가 꾸러미 허질 노릇이다. 낚는 것은 억지로
 이렇게 매 낚을 수 없겠는가 하기는 고려사람들이 끌호르츠를 떠나가기
 했는데 족제비 꼬야 말할 나위 없겠는가!

비상에서 풀 한바퀴 같이 "극성 끌호르츠"가 완전히 우리에코 손에 넘어가자
 나의 옛친구들이 타 지방으로 일사 했거나 사냥했다 끌호르츠에 오려
 있을 자기가 없어서 각각으로 왔다. 몇일간 더 다스켄트에서
 놀다가 하마코스크로 돌아 왔다.

1983년 6월에 김 바르웨이 제보페에이르 - 소련 년급생,
 황웅세 - 소련 년급생, 남봉식 - 소련 년급생, 리눈일 - 소련 년급생,
 강상호 - 공화국 년급생, 서재욱 - 공화국 년급생, 김세일 작가
 이상 일곱 동무들이, 리동휘의 기념비를 그의 가족들이 사는 우리전치,
 우리에코 공화국 이 전립 할 것과 중앙 아세아의 어느 학교를 리동휘의
 이름으로 부를 것과, 카르노스관 코질 - 오르다에 있는 홍 1번도의 물살이
 기념비를 세울 것과 이 세디 어느 학교와 소년관을 홍 1번도 이름으로
 부르려 코질 - 오르다 박물관이 홍 1번도의 혁명 수염에 관한 극적은 설치

해갈라는 청원서를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에 제출한바 있다 그후 서기국의 회답은 말았다 그 회답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 동북들의 말기를 찬동한다 그러나 중앙당이 자금이 없다 그러나 동북들의 힘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라" 우리는 그때 이런 회답을 받고 기분이 상했다 중앙당이 즉 형명가의 기념비를 건립할 돈이 없겠는가 이것은 조선혁명가들의 공적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중앙당이 청원을 쓰려한다면 꼭 포기하고 말았다.

나는 조선민주통일 구국전선위원의 한 사람이다. 1993년 10월에 위생촌에서 열린 구국전선 대회와 서울 대회가 참석했다 이 대회들은 국제적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서울 대회에 대해 쓸 것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관공체라 이를 생략한다

내가 살고 있는 하마류스크 시에 대해 잠깐 언급하려 할까 나는 이 도시의 연혁을 말라 자는 것은 아니다. 이 도시가 점차적으로 국제도시로 전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지금 이 도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그중에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 있다. 구소련의 문화국들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외국인들이 직업은 다양하다 주로 상인들이라 대학 교수, 목사,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하마류스크 시에 와서 어떤 일을 하든가 이들에게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 시에 립업 레포트부가 있다 레포트부의 인원은 약 40명 추산된다. 한 일년 전만 해도 수령과 강을 찬양하는 구호들이 레포트부 건물 벽들에 나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다. 레포트부는 안전부도 있다 안전원들을 립산사업소에서 도망친 자기사람들은 못잡느라고 증증하라 이에 대한 레포트부의 실례를 이회이 말라했다 보라리 장수'들도 때때로 내향 큰 관심을 가지고 이보라리 장수'군들과 말해 볼 일이 된다. 내향이 - 강선들은 1일부공인레 1일부은 안하오 왜 되넘기 장수'하르 있소. 강선들이 책임자이 허가를 얻고 이런 장수'하오 - 하니 그사람들 말이 - 우린을 좋아서 이런 수치스러운 되넘기 장수'하르 하겠습니까. 먹고살아야 하겠느니까 하느 일임니까 우리 책임자들은 보느책 따느책하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저 돈품이나 생기기 되느정 전만은 그들에게 주어야 함니까. - 한다.

이보라리 장수'들 외에 립산사업소에 활동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을 활동자라 한다. 이들을 이시에 와서 숨겨 산다. 대개라 30살 되는 젊은사람들이라 그들의 식솔들이 북한에 있다 활동자들의 말이

이하런 러시아도 많이 남은 활동자들의 식솔들은 물론 관계 안 말고 무한 남한
 으로 도주한 사람들의 식솔들을 정비를 보내거나 재판은 한라 한라 그래서
 이런 활동자들은 러시아 많이 남아 있지 한라. 활동자들의 생활이 아주
 곤란하다. 신분증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 나라갈 등하는 사람들이 그
 도와 주고 있다. 이런 특사들도 그들을 돕고 있다 늘 살아남지 할 수 없다
 그래서 활동자들이 기본 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는 문들이
 있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시 상기상조다

대표부 안전원들이 활동자들은 못잡으라 그 음모해라 일라는 실패를
 들자고 이상이 많았는 데 그 실패는 다음과 같다.

10월 10일에 체르노빌스까지 지리역 85호 주택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집이 활동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라 그러나 아직
 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 수 없다. 대표부놈들이 이 밤새를 알고 나온
 야침 여섯시에 여섯 사람이 차를 타고 와서 85호 주택은 포위했다.
 안전원 세 사람이 활동자가 사는 방에 뛰어든다. 안전원 한 명이 활동
 자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활동자에게 걸이어들었다. 이 ^{순간} 사각이 활동자가
 자기 곁에 있는 식으로 보좌기 유닛을 쏘고 한놈을 말길로 차고 몸을 ^뒀
 뒀라 하기는 활동자도 칼에 정상을 잃었다. 피를 흘리면서 갈아날라.
 생명은 구원했다 이 활동자는 목숨이 남은 때 ^{11월} 11월부대에서 거기
 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용병이라 재판한 사람이 못잡아려
 왔던 대표부놈들이 정안에 있는 물건만 동량 걸어가자고 돌아
 갔다. 이후 대표부 안전원들이 - 그들의 (활동자) 주소를 대주는 사람에게
 3월 불이 상급은 죽일 라는 소문을 던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전원
 두 사람을 칼로 쏘고 갈아낸 활동자를 못잡고 있다. 앞으로 못잡은
 건이다. 그 사람이 안전한 곳에 가 있다.

이 일이 어떤으로 끝난 건이 아니다. 이 봄 1월시에 대표부놈들이 85호집의
 물건들을 훔쳐간 사실을 이집주인이 재판에 회부했다 앞으로 재판이
 있을 것이다 대표부놈들이 망신은 후후히 하리라고 본다.

나는 이사를 찾아오는 한국기자. 일본기자를 종종 만난다. 그들이라 활동자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활동자들의 수가 ^점 줄어들어 가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체르노빌에 와 있는 북한 김일성공들의 생활
 형편을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도 있다. 지난해 7월이 김일성이 죽었을 때 체르노빌 책임자
 (김씨)가 김일성이 제사를 지내 겠다라 무하 한 사람을 제물수려 하바류스로

보냈다 이 사람이 이 시에 와서 육류, 어류 각각 두 킬로씩, 식물성 기름, 술, 채소
 기타 식품을 사가지고 어느 한 집에서 묵숙 한다 그때 마침 이집이 한국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이 다 같은 조선 사람이라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다
 이후에 랑이씨가 자기가 저물 사려 보낼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만난다라 해서
~~그에게~~ 그를 조국 (북한 사람들 조국이란 말을 잘 쓴다)으로 축출한 사실이 일러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만난 것이 죄가 된다면 흥일은 어떻게 한라는 문제가
 북한에서 지른 죄를 두고 있는 흥일도 흥일을 믿고 끝까지 믿는다.

원동기 체제도 산림 속에 ^불모르는 조예제도라고 했으면 좋은 년지, 불건
 제도라고 했으면 좋은 년지 모를 제도가 의적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그 비용을 따져 보면 그것이 사실이다 북한처럼 인간 차별이 심화 나라로
 비지구상이 없는 것이다. 이제 몇가지 사실들을 들어 보기로 하자. 체제론에서는
 상부(상전)와 하부(조예) 사이에서 쓰는 특정한 말이 있다. 즉 상부가 하부를
 대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물 저물이라고 안하고, 이놈아, 저놈아,
 너 자식, 저 자식, 지어는 이 색끼, 저 색끼 등 반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년령은 관계 없다 상부 사람은 하부인 너리가 형사 같은 거든 이런
 말만 쓰는 것이다. 이것이 조예 사회나 불건 사회가 아니란 말인가,
 유사 차별이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지도 없다, 여기에는 감옥이 있다 랑이씨가
 안전원이 자기 이끼에 저를 리는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 넣는다 그러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짐내외 ~~정~~말이라 눈병이 많을 병이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사람을 찾은 대신에 나무를 베다가 죽은 다는 조국이
 불고 할라. 벌목장이 뜰이 아니라 열 자리가 있리란 할라 이런 자리에
 퇴직하자면 책임자이게 죄를 넘겨야 한다, 상부가 위협하 라고
 보는 사람은 생다리에 김스뽕 때를 치는 조국으로 추방한다. 체제론이
 만여명 립업공들이 와 있다 그런데 목욕탕은 하나도 없다 이(뽕)가
 너무나 그래서 저들이면 립업공들이 배복은 벗어서 이가 죽으리란 일도
 다 ~~다~~ 할라. 김일성은 지상 낙원을 꾸민다라 했다 이 것도 지상 낙원인가.
 한바다로 말해서 북한 고위층이 말로는 인간을 위해서 일한다 고 하지만
 관 사실은 사람을 모욕하리 면서 한다. 체제론은 지도층은 이상과 같은
 사실들이 많으므로 새 나갈 가마 문갖 조처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 출입이
 금지 돼 있다 어느 때가 독일스미엔 잡지 기사가 체제론이 가서
 사진 촬영을 시도하다가 때를 맞고 사진기를 매맞기 사실이 일어난다
 최근이 들을 내 체제론은 립업공들이 폭동을 일으킬 위험이 일리란
 해서 믿어 있던 립업공들은 대중적으로 조국으로 보내고 가장 신봉하는

림업공들을 끄쳐 한라고 한다 현재 여기에 와 있는 림업공들이 다 강의
 심사를 받고 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 속에 활출자들이 있었다
 이왕에 끄쳐하는 사람들도 속에도 활출자가 있으리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양식으로는 부정 사건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 생활수준과
 인구를 늘이며, 인권을 존중하며, 위생시설 등 이런 원칙적인 문제들을 해결
 하지 않고 호령, 명령, 공갈, 억압으로서는 사회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

내가 "로년에 짐이 얹어 쉬지 않고 '주국신분'을 애달라라니 그게 무슨
 로망이오" 하는 편지도 받고 나와 직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를 아끼어서 하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국전선' '나구리어'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런 충고를 말아 드릴 수 없다
 나는 조선사람이라 애국자라 그래 목한 겨레들이 도한에 가서 신을
 하는 소리를 듣고도 나리러 수수방관하라는 말인가! 내가 아직 살아
 있는 한 목한 겨레에게 주우일로 만흔이라도 도움이 될라면 말하고 나서
 갔다 신을 애달도 계속하잖다 또 이런 사람들을, 그 신을 애달라라
 목한 안절원에게 걸리면 생명이 위협하라고 말한라, 그럴 수도 있라
 그러나 나는 겁쟁이 아니다. 그놈들을 겁나서 내할 일은 못하겠는가.

내가 "주국신분"을 가지고 "국제시장" (이시장이 중국인, 목한사람,
 미국인, 일본사람 기타 사람들이 일라 해서 국제시장이라 부르라)
 으로 왕태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이시장으로 자주 다니기에 이런
 상인들이 내런 북문안다. 나는 주로 목한 블라디 장사주들에게 신분을
 준다. "이신분이 어리서 말간 되는가" 라 물는라 나는 "목한에서
 말하리라" 라 하라 엮는 되한다. 중국에서 온 조선사람들이 "주국신분"을
 좋아 한라 또 가라노라나와 말한라.

내가 끄쳐하는 낚시질 철도 이제 두랄 밖에 남지 않았라 고기잡는 재미도
 있거니와 목한 사람들과 말하는 재미도 있라 이제 그런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우리 짐에서 한 30분간 걸어가면 강변이 있라 여기에 10여 명이 쟁우
 할라 10여에서 내런지는 무스러기를 주어 먹노라고 고기들이 잘 문여 든라 여류이런
 낚시질꾼들이 이강변으로 고기 낚러온라. 이강변에서 목한 림업대포무가
 가깝라 그래서 대포무 사람들이 여기와 고기를 잡노라. 나는 이이 관심은
 두었라 이 강에 와서 낚시질도 할겸 저 목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도
 할 수 있라고 생각했라 쟁우 먹고 알 먹는 셈이다. ~~어런 강에 낚는 것이라든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하는 생각한 결과 이강변에 낚는 것이라든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하는 생각한 결과 이강변에 낚는 것이라든가~~

어떻게하면 낚시질 하려 나온 낚시사람들의 주의를 끌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
한 결과 이렇게 하기로 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매우 인모일까라 이감만으로 낚시질 하려 나온 낚시질
하러 나온 사람들은 다 감부족들이라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인모일에 낚시도구를 가지고 강변으로 나왔고 살펴보니 낚시질꾼들이
많아 대부분 사람들이 앉은사이 1인자치가 하나일까 거기 가서, 여기 앉으면
좋겠습니까 하니 한사람이 앉으셨-한다 낚시질꾼은 첫 인사가, "고기가
잘 잡힐까" 다 그래서 부도 첫 인사를 하니 한 작자가 - 그 딱지 알습니까 -
한다 낚시도구를 펼쳐놓고 낚시어끼를 끼여 물에 던졌다 좀 있다가 내가
가자고 간, "평양-보스코야" 노래가 녹음된 화중 녹음기는 틀어 놓고 듣기
시작했다 바결이 앉은 사람들이 나를 힐끔힐끔 살피라 나는 그 눈치를 못
볼척해 노래를 계속 듣는다, "평양-보스코야" 노래이든 이런 구절이 있다

자우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들 소련의 노래는 비 조국을 전져를 노래의
대명군 영원한 우리 영원 영광이 있다. --

이 노래를 재차 듣노라니 낚시질 구경을 나온 한사람이 내 옆으로 다가온다
나이가 한 사십대 보이는 이사람은 옷차림이나 걸음걸이든 볼아도 여느 아씨가
흔할었다 이사람이 나 보고-얼굴감님 고기가 잘 잡니까? -한다 -내가
- 잘 안잡니까 그래서 노래를 듣습니까? -하니 고상함이 - 얼감님 지금
듣고 계시는 그 노래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한다 내가 가져온 일련 건이오-
하니 이 사람이-얼감님 지금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한다 그래서
내가 - 노래도 부는 법이 알나오? -했다 이런 대화가 그와 계속 됐다.
이 사람이 "평양-보스코야" 를 듣고 무슨 자극을 받을 것이 흔할 없다.
: 물론 이런 선전 망식이 숙취하리 혹은 화전 같라 그러나 나는 비소한 효과
나타낼까? -한다. 누가 물어라 하련지 나는 알므로 이런 일은 계속 할
예정이다

북한에서 일어난 해 외 소련이 되돌아 왔고 ~~이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질문에 간간히 대답하겠다

이 물음이 올는 때 감을 두려워한 1950년대이 북조선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충 말해야 한다

쓰달릴 개인승에 시기기 소련은 사람들이 철이 장막에서 살았다
언론, 집회, 출판, 전사자수는 10명뿐이었던 적이 있다 어느 한 사람은

자유를 광의한 것이 아니라 소련 사람들이 해외 망명을 들은 것이,
 해외 출판물은 주류한 자유가 막혔다 사람들이 세게 정세를 느낀
 쓰러질 만세만 부르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북조선에서 쓰러질 개인들에
 불같은 더 가혹한 처우를 계속 타르리라 알겠사대 그때 왜놈들이 조선
 인민의 자유를 막을려고 유언했다던 오늘이 와서 북한까지 제 사람이
 제 사람을 한양하리 학살하리 일라이 어둠이 리는 계속 될 수 없다

1953년에 쓰러질 이 죽었다 그러자 쓰러질 이 개인승매가 폭로
 되기 시작했다 1955년에 쓰러질 공산당 제 20차 당대회가 모스크바
 에서 개척됐다 이 대회에서 흐루쇼프가 대담하게 쓰러질 개인
 승매를 폭로했다 그러자 각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쓰러질 개인승매를
 폭로한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일성은 이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의 쓰러질 개인승매의
 충실한 제자들이기 때문이라 실증관계가 4:10이 되기 시작됐다
 김일성은 이 늑대는 와서 반소, 친중 정책을 피하려고 저어는 소련
 군대가 북조선에 해방한 것이 아니라 백두산에 죽은 것만 조선
 인민군이 북조선에 해방했다라고 영리없고 과열치한 억측에
 갈렸다 북조선의 큰 도시를 특히는 함주도시와 산시에 김일성의
 큰 동상을 세워야 하도록 1945년 8월에 일본군은 패퇴무사
 이 도시가 책록 노닐라든 전대미문의 거짓말을 주며 내가지고 자기인민
 특히는 아예판은 속아 온 것 사실은 김일성에게 무개가 목판에 앞리가
 일본군의 총력이 말끔일 곳이 있어서 살기를 봤다 1946년에 소련
 국경을 넘어와 해아류스크부터 야드스크에 활력이 와 살았다가
 1945년에 북조선에 해방된 이후 흥화만은 못 쓰아 볼고 소련
 군함을 해 9월 19일에 연산항에 내린 것은 개인즉지의 사실
 이다

1955년에 열린 조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프라영미 사랑이원장
 등 공휴, 직출 중앙위원회 위원장 시회, 문화선전성 무장 김강
 100기, 노동당원들이 우리당에서 개인승매가 안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일성이 손을 쓰는 아랍이 등 공휴, 시회, 김강이
 많중에 중독으로 논쟁했다 이런 일이 벌어 김일성은 자기 말판이
 뒤흔들리가 와 짐나서 개인승매를 만대하든 사람들은의 명령을

적화라는 계획적으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 했기 때문 강연들이
늘감 되고 후폭력도 극심해 졌다

바로 이때에 중독공산당 대회가 북경에서 열렸고 이때 북조선
에서 수 많은 간부들이 수형 되고 몇 달은 보고를 듣고 평적화론 북조선이
파견 하여 사해를 마르 잠기로 했다 소련에 가는 미끄연이 북한으로
왔고 김일성이 미끄연과 평적화론 조연은 듣고 후폭력 된 말은
강연들을 북방 사령과 그러나 미끄연과 평적화가 북한은 그러나
김일성이 불이 내기 자기의 후폭력들을 도와 주고 소련공산당과
중독공산당이 조선 운동감 내침이 간섭한라 이극 명백했다

1957년에 모스크바에서 각국공산당 및 운동감 대회를 개최가 개박
했다 이 회의에서 단결화 와 전쟁 당의 전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상 차이를 하여 문 핵등이 고립 됐다 이럴게 되자
문 핵등이 북경이 돌아와 평적화론 김일성에게 불내여 중독공산당이
조선 운동감 내침이 간섭했다는 것은 사적화 김일성을 한 단 동안
북경으로 호칭 했다 김일성은 이 호칭을 알고 중독에서 돌아와 러
우를 보내기 "사상검정" 라는 악연 늘을 ^{간판} 주려하기 때까한 사람
들은 대중적으로 칭찬 하기 시작 했다 김일성은 문 핵등의 미화하기
"수정주의나" "제국이나국의" 나라고 만소 정책은 근본적으로 찬성 했다

1955년 12월이 김일성의 소위 "즉체사상"이란 관판을 내 걸
었다 알고 보면 "즉체사상"의 진짜 내용은 민족주의나 소련련의
철의 장막 정책을 계속 한것이라 김일성은 북조선의 민족의 라는 말을
말 끝까지 하지 말 사실 "즉체사상"은 북조선-제국주의와는 아무런
연연도 없다

소련련이 김일성을 존용 했는러 때 김일성이 만소로 왔는가
하는 티들이 생긴다 이상에서 말했지만 소련련이 눈을 감과
큰 특소브가 소련련의 개연승애를 폭로하는 마찰이 김일성은
자기 말중에 불이 려어 질가 화 점일 점어 먹고 문 핵등이 없호
하여 우선 소련에게서 문 핵등은 문 조로 칭찬 하기 시작 했는
소년 관원에서 공침원으로 공침에서 소련공산당 당원이 된
소련간부들은 만소 정선으로 프양하기 어려우라 하는 것을 깨
자르 김일성은 소련서 문 핵등은 ~~부적합한~~ ~~고위급까지~~ ~~몰아내~~

만자리에서 쫓아 내고 그들에게 날로 된 죄를 씨워 후회하고, 정어를 벌이고 지어는 흥살까지 해라

이이 재한 몇가지 실태를 들어보기로 하자

김일성이 런던 사상전후의 그들이, 이적 중앙당 선전부 장관 '박정우, 문화선전성 부장 기석복, 정복, 중앙당 선전부에서 일하던 권동혁, 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박영인, 내각 부수장 '박이완' 이 많은 명단 수장은 이 집권과 허가자가 말로는 자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암살 됐다. '박정우' (일제시대 때 국제공산당이 타건으로 지하공작수반 명단 최이리) '박정우' 네수가 일제시대 지하공작을 한분이 라는것을 모르는사람이 없다 특히 김일성이 리갈알고 일과 2번에 '박정우' 마지막 명령이 어찌될지 됐는가? 간단히 말해 보자 김일성은 '박정우'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잡아내고 '박정우'가 중앙당으로서는 정량치속하라는것을 어떻게 알면서 고이적으로 '박정우'를 중앙당 직에서 쫓아내고 얼마 안 돼서 그가 일한 잘 못 할라고 그러어라 그 후 '박정우'의 운명이 비문명하라

이전 상임위원회위원장 김두봉을 어떻게 살려줬는가

이물은 소련서 온 물이 아니라 열안에서 온 물이다. 활자라 김일성은 인민들의 선지를 말로 김두봉 선생을 공화국 헌법은 잘 알고 자기 마음대로 그를 농혼으로 내리갈라 마음 그에게 큰기 소를 주어 결국 소가 알아서 세상을 떠났다 김두봉의 증언은 활자살 됐다는 말도 없다 그러나 저러나 이적이야 말로 중세적 야만행이다

이름난 작가 한철영, 리해준, 동양기 이름은 알려진 무용가수 최승희, 만화가 신복출 그 많이 팔던 문인들, 예술인들이 학살됐라 이런 실태들은 더 계속할수 있다

이적이 위음들이 수백명 전한혁 명가들은 후회라 살려줬라 하면 저들은 김일성이 과거 혁명가들은 만조리 없애 무라라 일과 지어는 자기의 전력을 까지도 수형이라 일과 김일성은 자기이기에 조금만 거슬릴 라면 부근나 할것 없이 감옥이 들어 넣고 죽이라 개안술개이 후파가 마르르 이럴라 목조선에서 김두이다. '박정우' 흥살이 무슨 처서 보면서도 말은 뜻이라 일과

보라! 수라장 같은 이런 무사무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는가. 아침생이름, 제안심을 파놓는놈들, 추무리라

배신자들만이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위치하면서 인민들의 피를
먹으며 살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왜 북조선에서 왔는지 하는 물음이 계속 들리지만
이것이 라는 아니라 말하는 것 같으나 나의 아픔이 응원건의
아직도 많이

이산으로 끌려다

南鳳植

4월 30일 1995년.

하야루스쿠.

700125. г. Ташкент,
Ул. Сайфуллина, 5
Мян Хакпону.

680020. г. Каваровск
ул. Молдавский переулок,
дом. 5, кв. 64
Намтонсиж